

## 식민지시대 검열제도와 『님의침묵』의 수사학\*

엄 국 현\*\*

### 차 례

- |                               |                             |
|-------------------------------|-----------------------------|
| I. 만해시의 의도와 검열제도하의 수사학        | III. 이데올로기 비판의 정치시학과 산문적 진술 |
| II. 님의 정체와 알레고리·아이러니·역설의 만해시학 | IV. 시적 화자의 이중성과 남녀공용의 경어체   |
|                               | V. 맺음말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만해시의 ‘님’의 정체가 조국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군말」의 상징성은 만해의 숨은 의도를 숨기기 위한 방편이었고, 만해시의 역사성에 대해 말하는 「독자에게」에 ‘님’의 참된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았다. 만해의 『님의침묵』은 알레고리적 해석이 필요한 시집이었다.

불교적 세계관이 지닌 이상사회와 달리 현상의 세계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만해의 시는 아이러니와 역설로 이루어져 있다. 아이러니는 이상과 현실의 부조화와 거리를 나타내며, 역설은 부정의 변증법으로 현실을

\* 이 논문은 2005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를 받은 것이다.

\*\* 인제대학교 한국학부 교수. 한국문화와 문화전략연구소

넘어선 진리를 지향한다. 만해는 이상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역사적 제도가 국가라고 보았기 때문에 국권을 상실한 조국을 사랑하였으며, 식민지 시대의 잘못된 풍조나 거짓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올바른 독립의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런 만해의 시는 정서를 표현하는 서정시와 달리 산문적 진술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정치시라 할 수 있다.

만해시에 나타나는 사랑노래는 시적 화자의 이중성과 남녀공용의 경어체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녀의 대립을 초월하는 사랑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만해시는 타고르와 김억의 역시의 '구어체'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 구어체는 여성적인 어조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사용하는 문체였다. 만해는 시적 화자의 이중성과 남녀공용의 경어체를 통해 조국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였는데, 이것은 조국에 대한 사랑에는 남녀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만해의 사상을 반영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만해시의 여성화자는 일제의 검열을 통과하기 위한 방편이면서 동시에 논개나 계월향과 같은 여성의 나라사랑을 반영하는 장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만해시에 나타난 '님'의 정체는 조국이라는 것은 만해시가 타고르보다는 근대 계몽기의 민족 담론과 민족주의 문학론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주제어 : 한용운, 검열, 상징, 알레고리, 아이러니, 이데올로기

## I. 만해시의 의도와 검열제도하의 수사학

한용운의 시집 『님의침묵』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님'의 상징적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고, 필자 역시 이 '님'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만해시를 읽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본다. 때로는 님의 정체를 밝히는 작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고, 만해시의 리듬에 대한 윤재근의 탁월한 연구 성과는 '님'의 정체와 관련이 없지만,<sup>1)</sup> 만해시에 대한 연구는 '님'의

1) 만해시의 리듬에 대한 연구로는 윤재근, 『만해시와 주제적 시론』, 문학세계사, 1983, 609-638쪽의 「만해시의 운율적 시상」과 윤재근, 『만해시 『님의 침묵』 연구』, 민족문화사, 1985, 389-458쪽의 「만해시와 미적 표현」 및 엄국현, 「한국시의

정체를 무시하고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님’에 대한 풀이를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님’의 역사적 문맥을 고려하여 ‘민족’과 ‘조국’으로 보려는 정치적 해석(조지훈, 정태용 등)<sup>2)</sup>과 한용운이 승려라는 점을 고려하여 ‘禪的인 悟道’, ‘法性이요 佛身’, ‘무아’의 상징으로 보려는 종교적 해석(송옥, 문덕수, 오세영 등)<sup>3)</sup>, 그리고 시에 나타난 형이상학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존재의 가능성’, ‘있어야 할 무엇’, ‘존재의 드러남’, ‘생명의 근원’ 등으로 보는 철학적 해석(김우창, 조동일, 김준오, 김학동 등)<sup>4)</sup>, 작품 자체의 문맥을 고려하여 붓다, 조국, 민중, 진리, 연인, 자연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조연현, 백낙청 등)고 보거나, 이와 달리 단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경우(‘연인’으로 보는 이남호, 김종인 및 ‘사람’으로 보는 김인환) 및 시작품의 ‘자세히 뜯어 읽기’나 시작품 그 자체 다시 말하면 ‘시가 언어로써 말하는 것을 체험’하는 문학적 해석(이상섭, 윤재근)<sup>5)</sup>이 그것이다.

리듬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문창어문논집』 37집, 문창어문학회, 2000. 12, 233-276쪽 참조.

- 2) 조지훈, 「한용운론」, 조지훈 전집 3 『문학론』, 나남출판, 1996, 308쪽.  
정태용, 『한국현대시인연구·기타』, 어문각, 1976, 34쪽.
- 3) 송 옥, 『님의 침묵 전편 해설』, 일조각, 1993, 중판, 373쪽.  
문덕수, 「한용운에 있어서의 님의 성격」, 『한용운연구』, 새문사, 1991, 수정쇄, III-15쪽.  
오세영, 『한국현대시인연구』, 도서출판 월인, 2003, 59쪽.
- 4) 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77, 130쪽.  
조동일, 「〈잠 없는 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용운 연구』, III-7쪽.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7, 4판 2쇄, 70쪽.  
김학동, 『한국근대시인연구』[ I ], 일조각, 1977, 중판, 59쪽.
- 5)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72, 재판, 434-435쪽.  
백낙청, 「시인문학론」,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창작과비평사, 1979, 3판, 50쪽.  
이남호, 『교과서에 실린 문학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현대문학사, 2001, 49쪽.  
김종인,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만해 한용운 『님의 침묵』 평설』, 나남, 2008, 14쪽.  
김인환,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읽는다』, 열림원, 2003, 105-109쪽 참조.

이와 같은 다양한 해석과 작품에 대한 자세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님’은 ‘그런것’의 본질이라고 추상화할 수 있을 뿐, 님이 누구냐의 질문에 대한 ‘간명하고 단정적인 해답은 불가능한 것’(윤재근)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럴 경우 만해의 시세계가 ‘막막히 감지되는’(이상섭) 정도라면 상당한 경지에 이른 시읽기라 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지나쳐서 님의 정체를 잘못 파악하게 되면 님에 대한 사랑을 ‘마썸히즘적인 사랑’으로 보거나,<sup>6)</sup> ‘만해시의 지나친 자학과 과장’을 보게 되고, 이에 따라 ‘만해의 한계’를 드러내야 한다고<sup>7)</sup> 주장하는 등 작품에 대한 해석을 넘어서서 만해의 인격을 폄훼하고 그의 깨달음을 의심하고 부정하는<sup>8)</sup>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 만해시 연구의 실상이라 할 수 있다. 만해시는 왜 이렇게 난해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까? 그의 시에 나타난 불교사상의 난해성 때문일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일까? 과연 만해시에 대한 열쇠는 없는 것일까?<sup>9)</sup>

이상섭, 「만해 시에의 열쇠는 없다」, 『언어와 상상』, 문학과지성사, 1980, 229-237쪽.

윤재근, 『만해시와 주제적 시론』, 문학세계사, 1983, 365쪽.

6) 오세영, 「마썸히즘과 사랑의 실체」, 『한용운연구』, III-25쪽.

7) 김윤식, 『근대한국문학연구』, 일지사, 1975, 3판, 226-227쪽 참조.

8) “『님의 침묵』의 입은 화자를 여성화시켜서 사랑의 간절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입은 그는 서여연화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녀의 사랑을 발전시켜서 겨레와 여래의 우주공간을 낳은 것이다. 한용운은 절대로 大道를 깨달은 각자가 아니다. 그가 좀 더 커다란 사상을 가지지 못한 것은 그의 이기주의 때문이다. 『님의 침묵』은 그다지 위대한 시집은 아니다.”(고은, 『한용운 평전』, 민음사, 1978, 중판, 218-314쪽.) “만해는 먼저 스스로 지닌 未得道 때문에 오히려 남의 未得道까지를 나의 것으로 삼았던 것이다.”(김열규, 「한용운 시의 아이러니」, 『한용운연구』, II-48-II-49쪽.) “님을 자아와 구별하여 주·객관으로 대립시키는 이 일상적인 분별심이야말로 시인이 진정한 님과 대면할 수 없었던 원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만해의 존재론적 고독이 그의 시에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오세영, 「마썸히즘과 사랑의 실체」, 『한용운 연구』, III-33.) “만해에게 깨달음의 완성은 아직 유보되어 있는 것이다. 자아를 부분적 깨달음밖에 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한 것이 도리어 만해시의 매력이다.”(김준오, 「현대시와 선사상」, 『현대시의 환유성과 메타성』, 살림, 1977, 18쪽.)

필자는 만해시의 난해성은 그가 시집을 내게 된 ‘동기’<sup>10)</sup>와 ‘의도’<sup>11)</sup>인 조선 독립의 고취와 독립의 방법에 대한 모색 그리고 고난에 찬 조선 민중에 대한 위로가 식민통치와 충돌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식민지시대의 검열제도를 피해 자신의 시적 의도를 살리고자 하는 어려움 때문에 만해시가 난해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 
- 9) 만해시의 난해성에 대해서는 여러 논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조동일은 그것이 선종에서 개척한 불교문학의 전통이 깊이 작용하기 때문이라 보았고(『<잠 없는 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용운 연구』, III-8쪽.), 송 혁은 그의 시 속에 구국지사로서의 민족주의 사상과 대선사로서의 불교사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까닭이라고 보았으며(『만해의 불교사상과 시세계』, 『한국불교문학 연구』(下), 한국문학연구소 편, 동국대학교출판부, 1988, 322쪽.), 김인환은 ‘님’이라는 낱말의 의미를 작품 자체의 체계 안에서 규정하려고 하지 않거나 독자가 자신의 선입견을 지나치게 투사하면서 수용하거나 불교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하였고(『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읽는다』, 95-96쪽.), 김종인은 『님의 침묵』의 난해성은 창조적인 시어이자 깨달음의 언어 때문이라 하였으며(『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9쪽.), 신용협은 『님의 침묵』의 시편들의 난해성은 사상의 깊이에 있다고 보며, 전 작품을 놓고 볼 때 해석이 아직도 불투명하고 모호한 작품이 많으며, 만해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작품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한용운 문학의 연구사적 비판과 전망』, 『한용운 연구』, III-36, 37쪽 및 III-46쪽 참조)
- 10) 동기, 의도, 소재, 주제, 모티프, 상징, 이미지는 상호 관련되어 있다. 문학작품에서 이미지는 경우에 따라서 주제, 모티프,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루베레스에 따르면 동기는 가장 작은 소재적 단위이다. 모티프와 주제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개념이다. 주도 모티프와 특징적 모티프는 주제를 위한 건축적 단위로서 기능하며, 음악에 음악이 본래 갖지 못한 의도의 차원을 부여한다. 이 점에 있어서 음악은 언어와 비교될 수 있다. 19세기 음악의 주요한 부분은 의도들로 채워져 있다. 독자반응비평에서 <내포작가>라는 관념은 수많은 독자들이 특정 작품에 대해 작가의 의도와 일치하는 다소간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이재선 엮음, 『문학 주제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6, 67-241쪽 참조)
- 11) 리차즈에 따르면 시는 의미, 느낌, 어조, 의도로 이루어져 있고, 의도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 목적을 이해하는 일은 의미를 이해하는 일이다.(김영철, 『현대시론』, 91-96쪽.) 또 리콕르에 따르면 담화에서 의미의 문제는 화자가 문장 안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바다. 그래서 담화의 의미란 그 화자의 의도와 일치한다.(윤성우, 『폴 리콕르의 철학』, 철학과현실사, 2004, 97쪽.)

『님의침묵』이 간행된 1926년을 전후한 검열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9년 3·1 운동 이후에는 해마다 수많은 잡지가 출간되었다. 자금이 부족해 창간호가 중간호가 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민중 속에서 솟아 오르는 문화운동은 눈부신 바 있다. 주목되는 점은 20년대에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노동, 농민 운동 관계 잡지가 많이 출간되었으나, 30년대에 들어서면 주로 문학관계 잡지가 많아지고 있다. 일제의 탄압이 30년대에 들어와 점점 노골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개벽』지는 1920년 6월 창간되어 26년 8월 1일 72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될 때까지 압수 처분 34회, 정간 1회, 벌금형 1회의 피비린내 나는 탄압 끝에 마침내 폐간되었다. 마지막 폐간호는 일제의 검열관에 의하여 작두로 갈기갈기 잘려 폐기 처분되었다.<sup>12)</sup>

검열과 관련된 만해의 구체적 체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해 한용운이 창간한 1918년 9월의 『유심』지에 인도 철학자로 소개된 타고르의 「생의 현실」이 1호에서 2호까지 번역되었으나, 3호에는 “「생의 현실」의 인가가 안 되어 게재치 못함(『유심』 3호 후기)이라 하여 중단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 무렵은 검열이 그다지 심했다고는 볼 수 없는 데도 이러한 조처가 취해졌음은 일본정부측이 식민지정책 수행상 타고르의 위치를 위협시켰다는 사실이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sup>13)</sup>

일제의 검열제도가 만해의 시 창작에 끼친 영향에 대한 만해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그러나 시집의 서문인 「군말」과 발문인 「독자에게」를

12) 송건호, 「일제하 문화와 통치」, 『문화와 통치』, 민중사, 1982,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원 편, 160-161쪽.

13) 김윤식, 『근대한국문학연구』, 일지사, 1975, 3판, 194쪽 및 205쪽. 타고르 연구가인 차크라바르티에 따르면 타고르는 일본 및 미국 방문 중에 쇼오비니스트적이고 탐욕적인 민족주의(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감추지 않았다고 한다.(김윤식, 『근대한국문학연구』, 205쪽 참조.)

자세히 읽어보면 서문에서 하는 말과 발문에서 하는 말의 초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문은 주로 ‘님’의 상징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발문은 만해의 조국 독립에 대한 소망이 표현되어 있다. 발문에 따르면 ‘님’은 상실된 조국이라는 알레고리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서문에서의 ‘님’의 상징성과 발문에서의 ‘님’의 알레고리적 의미라는 만해 시집의 님의 의미의 얽힘은 일제의 검열제도를 피하기 위한 만해의 불가피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4)</sup>

식민지시대의 검열제도를 통과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해는 상징이라는 수사학을 이용한다. 상징이라는 수사학을 통해 그는 그의 시집이 조선의 독립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자신의 의도를 숨긴다. 이것은 「군말」의 “「님」만님이아니라 괴른것은 다님이다 중생이 석가의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님이다. 장미화의님이 봄비라면 마시니의님은 이태리다 님은 내 가사랑할뿐아니라 나를사랑하나니라”라는 말이 바로 자신의 의도를 숨기기 위한 상징의 수사학이다.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써서 중생을 진실한 대도로 이끌어 들이는 지혜를 방편이라고 한다.<sup>15)</sup> 만해 시에서 상징은 식민통치의 검열을 피하기 위한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의 ‘님’을 상징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만해의 의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만해시의 의미의 얽힘을 풀기 위해서는 방편을 꿰뚫는 독자의 지혜가 필요하다.

14) 만해의 문학이 검열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설 『흑풍』의 배경을 중국으로 하거나 『님의침묵』에서 고도의 상징이나 비유를 쓰는 등 간접적인 우회 수법을 활용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박노준·인권환, 조연현, 김용직, 이명재 등이 지적한 바 있다.(이명재, 『한국현대민족문학사론』, 한국문화사, 2003, 220-222쪽 및 김용직, 『한국근대시사』 上, 학연사, 1998, 134-137쪽 참조.) 일제시대 검열문제에 대한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한만수, 「일제시대 문학검열 연구를 위하여」, 『배달말』 27호, 2000년 12월호, 82-84쪽 참조.

15) 운허 용하, 『불교사전』, 동국역경원, 1985, 251쪽. 『유마경』 제5 「문수사리문질품」에서 “방편이 없는 지혜는 얽힘이요, 방편이 있는 지혜는 풀림”이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만해는 『유마힐소설경강의』에서 지혜와 방편은 쌍전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한용운 전집』 3, 2006, 불교문화연구원, 310-311쪽 참조.)

만해시의 ‘님’은 알레고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상실된 조국이며, 고난 받는 조선의 민중이다. 이것은 「독자에게」에서, “나는 나의시를 독자의자손에게까지 읽히고싶은 마음은 엽습니다 그째에는 나의시를 읽는것이 느진봄의뿔뿔에 안저서 마른국화를비며서 코에대히는것과 가뜰는지 모르것습니다”란 말을 통해, 그리고 서문의 “나는 해저문별판에서 도리가는길을일코 해매는 어린양이 괴루어서 이시를쓴다”라는 말을 통해 잘 나타난다. ‘그때’란 조선 독립의 때이며, ‘어린양’은 조선의 민중이다. 이처럼 만해시의 알레고리적 수사법은 만해의 의도를 직접 드러내는 것이다.<sup>16)</sup> 만해의 『님의침묵』이 상징과 알레고리라는 서로 다른 의도를 지닌 수사학이 얽혀 있으나, 그의 시에서 상징은 일제의 검열을 피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의 시를 읽을 때 『님의 침묵』은 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 논문은 만해가 국권을 상실한 조선의 민중을 위로하고 식민지시대의 거짓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며 조국의 독립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를 어떤 수사법을 통해 드러내는지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6) 알레고리의 범주 가운데 하나인 우화에 대해 보카치오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우화라 함은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서, 이것은 가공의 외관에서 어떤 의미를 예시하여 밝혀 주며, 그 가공의 껍데기를 벗길 때 저자의 목적이 드러나는 것이다.”(John MacQueen, 송낙현 역, 『알레고리』, 서울대 출판부, 1983, 57쪽.) 최동호는 한용운이 시집 발문 「독자에게」에서 그가 시집 전체를 통해 취해 온 여러 가지 목소리의 베일을 벗고 독자에게 직접 말하고 있으며, 식민지 시대에 쫓겨난 시가 독립된 조국을 가진 그날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는 것이 아마도 한용운이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님의 정체에 대해서는 광명 의식, 생명의 근원으로 보는 등 만해의 시를 다양하게 읽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이라 할 수 있다.(최동호, 『한용운, 혁명적 의지와 시적 사랑』, 건국대학교출판부, 1996, 45, 53, 72, 73쪽 참조.)

## II. 님의 정체와 알레고리·아이러니·역설의 만해시학

님의 정체에 대한 연구는 님이 조국과 민족을 뜻한다고 보는 것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경우로 전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님에 대한 간단한 우의적인 해석은 그가 말하려는 것에서 의미의 긴장감을 제거해 버린다거나,<sup>17)</sup> 님의 침묵을 조국의 상실로 대치하려 한다면 성급한 해석이 되고 만다거나<sup>18)</sup>, 민족의식이라는 단일개념은 복합개념의 다각적 해석을 본질로 하는 시의 특징에 맞지 않는다고<sup>19)</sup> 보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에 따라 님의 의미가 조국이나 불타, 연인으로 해석되는 것은 시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는 활력소로 평가되고 있다고<sup>20)</sup> 보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을 정도이다. 과연 이러한 해석이 한용운이 의도하고 또 그렇게 읽어주기를 바랐던 해석일까? 만약 그렇다면 만해가 “여러분이 나의시를읽을때에 나를숨어하고 스스로숨어할줄을 압니다.”(『독자에게』)라고 한 그 슬픔의 이유는 어디에 있던 말인가. 민족의 역사적 공동운명이었던 국권상실 이외의 어디에서 만해와 독자가 함께 지냈던 슬픔을 찾을 수 있던 말인가.

가다머의 해석학 가운데 특유한 개념이 영향사인데, 어느 한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자가 저자의 작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품이 수용된 역사를 두루 살피는 것이 이해에 중요하다는 관점이다.<sup>21)</sup> 만해시에서 신앙심과 애국심을 함께 읽은 주요한의 이해는 스스로 ‘독후감’이며 ‘인상비평에 불과한’ 글이라<sup>22)</sup> 하였다고 해서 무시해도 좋은 것

17) 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77, 130쪽.

18) 이남호, 『교과서에 실린 문학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48-49쪽 참조.

19) 김인환,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읽는다』, 열림원, 2003, 29쪽.

20) 김영철, 『현대시론』, 건국대학교출판부, 1993, 76쪽.

21) 손승남, 『가다머의 해석학과 교육』, 『교육은 자기 교육이다』,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 손승남 옮김, 동문선, 2004, 49쪽 참조.

22) 주요한, 『愛의 祈禱, 祈禱의 愛』, 『한용운사상연구』 1권 1호, 만해사상연구회, 1980, 15쪽에서 재인용.

일까. 신동욱, 강만길 등이<sup>23)</sup> 만해의 시에서 찾은 조국은 일부 작품에만 해당되는 것일까.<sup>24)</sup> 아니다. 『님의침묵』의 전편이 조국과 민족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만해시의 님이 연인이라는 주장은 만해시의 꺾데기에 집착한 주장이며, 방편을 사용한 만해의 지혜를 읽어내지 못한 주장이다. “연애가자유라면 님도자유일것이다”(「군말」)라는 말은 연애의 자유와 님의 자유가 서로 다른 차원의 것이며, 당위성과 달리 님이 현실적으로 자유롭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님이 연인이라는 주장은 『님의침묵』 가운데 조국을 사랑하는 시편들이 존재하는 이유나, ‘적의기사발’ ‘민적’ ‘인권’ ‘군함’ ‘포대’와 같은 말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더구나 만해시에 나타나는 아이러니의 수사법은 현세는 본질적으로 역설적인 것이며, 삶과 죽음,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에 근본적인 부조화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아이러니는 거리감과 객관성, 서사시 예술의 정신이란 점을 고려할 때,<sup>25)</sup> 그의 시는 서정적인 정서와 무관하며, 만해 스스로 자신의 시가 서정시와 거리가 멀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서정시인이되기에는 너머도 소질이업나벼요  
 질거움이니 슴음이니 사랑이니 그런것은 쓰기시려요  
 당신의 얼굴과 소리와 거름거리와를 그대로쓰고십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과 침대와 쫓밧헤잇는 적은뚝도 쓰것습니다  
 - 「예술가」에서.<sup>26)</sup>

23) 신동욱, 『우리시의 역사적 연구』, 새문사, 1981, 180쪽.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2001, 17쇄, 194쪽.

24) 김용직은 『님의 침묵』에 실린 한용운의 몇몇 작품이 민족의식을 담은 항일 저항의 작품이라고 보았고(김용직, 『한국근대시사』 상, 137쪽.), 김우창은 「참말인가요」, 「논개의 애인이 되어서 그의 묘에」, 「당신의 편지」, 「당신을 보았습니다」, 「계월향」 등에서 님 부재의 원인이 일제에 의한 주권피탈에 있음이 시사된다고 한 바 있다.(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131쪽.)

25) D. C. Muecke, 『아이러니』, 문상득 역, 서울대 출판부, 1986, 37쪽 및 79-80쪽.

이 시는 만해시의 철학적 기초를 스스로 밝히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시는 당신에 대한 즐겁고 슬픈 서정적 사랑의 시가 아니라 당신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자 하는 객관적인 정신에서 그의 시가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만해시의 아이러니, 거리감과 부조화의 세계인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것은 무엇보다 불교적 세계관과 현실의 부조화 때문이다. ‘중생이 석가의님’(「군말」)이라고 믿었던 만해와 ‘엘리트적인 계몽주의와 철저한 우민관, 관 본위주의’를 떨치지 못했던 1900-1920년대의 한국 지식인의<sup>27)</sup> 거리, 그리고 ‘연애가자유라면 님도자유일 것’(「군말」)이라는 당위와 ‘님의침묵’이라는 현실 사이의 거리가 그것이다.

님은갓습니다. 아아 사랑하는나의님은 갓습니다  
 푸른산빛을깨치고 단풍나무숲을향하야난 적은길을 거러서 참어떨치고 갓습니다  
 황금의꽃가티 굵고빛나든 옛맹서는 차디찬씨슬되야서 한숨의미풍에 내려갓습니다  
 날카로운 첫「키스」의추억은 나의운명의지침을 돌너노코 뒤스거름쳐서 사라갓습니다  
 나는 향기로온 남의말소리에 귀먹고 쫓다은 님의얼굴에 눈머렸습니다  
 사랑도 사람의일이라 맞날째에 미리 써날것을 염녀하고경계하지 아니한것은아니지만 리별은 뜻밖의일이되고 놀난가슴은 새로운숨에 터 집니다  
 그러나 리별을 쓸데업는 눈물의원천을만들고 마는것은 스스로 사랑을깨치는것인줄 아는까닭에 것잡을수업는 숨의힘을 옮겨서 새희망의

26) 이 논문에 인용된 만해시는 한계전 편저, 『한용운의 님의 침묵』, 서울대출판부, 1996 및 새문사, 『한용운연구』의 부록에 실린 『님의침묵』(회동서관간, 대정15년, 1926년) 초판본의 표기를 따르되, 편의상 한자는 한글로 바꾸었으며 인용된 쪽 수도 생략한다. 새문사의 초판본은 「당신은」, 「행복」의 1연, 「밤은고요하고」란 작품이 빠져 있다.

27) 박노자, 『나를 배반한 역사』, 인물과사상사, 2003, 265쪽.

정수박이에 드러부엿습니다  
우리는 맛날때에 씨날것을염녀하는것과가티 씨날때에 다시맛날것을  
밋습니다  
아아 님은갓지마는 나는 님을보내지 아니하얏습니다  
제곡조를못이기는 사랑의노래는 님의침묵을 휩싸고돕니다  
- 「님의침묵」 전문.

님은 떠났지만 님과 다시 만날 것을 믿는 시적 화자의 님에 대한 뜨거  
운 사랑을 노래하는 이 시는 시집의 첫머리에 해당될 뿐 아니라 시집의  
제목으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집의 성격과 의도와 방향이 잘 드  
러나 있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를 시집 전체와 관련하여 읽는다면  
님은 조국임이 명백하겠지만, 이 시만을 자세히 읽기만 하더라도 님의  
정체는 조국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다.

「님의침묵」의 ‘날카로운 첫 키스’에서 첫 키스가 감미롭지 않고 날카  
롭다는 것은 이것이 이성간의 키스가 아니며,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필요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민족에 대한 참된 사랑을 깨달은 순간  
도 되고, 견성의 진리를 깨친 찰나도 된다. 공이 존재와 접촉하는 순간  
이기 때문에 <감미로운 첫키스>가 아니고 <날카로운 첫키스>, 이렇게  
표현하였으리라.<sup>28)</sup>

송옥의 알레고리적 해석에 따르면 님은 민족 혹은 견성의 진리로 해  
석되는데, 이 가운데 님을 형이상학적 진리인 불성으로 보는 것은 만해  
의 시와 모순된다. 왜냐하면 불성은 상주하며, 법계에 충만하며, 오고 가  
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열반경: 佛이 가섭에게 고하시되, 여래의 身은 是 常住의 身이라 壞치

28) 송옥, 『님의 침묵 전편해설』, 일조각, 1993, 중판, 23-24쪽.

아니하며,  
화엄경: 佛身은 법계에 충만하여 일체중생의 前에 普現하시어,  
기신론: 제불여래의 법신은 일체처에 徧하여 作意가 無한 고로 自然이  
라 설하니,  
불경계경: 여래의 법신은 不生不滅하며 不去不來하며<sup>29)</sup>

만해는 그의 나이 36세에 “불교의 모든 경전에서 주옥을 추려내어 독창적인 체계 밑에 재구성한”<sup>30)</sup> 『불교대전』을 발간하였고, 39세 때 오세암에서 좌선하던 중 바람에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의심하던 마음이 씻은 듯 풀리며 다음과 같은 오도송을 남겼다.

男兒到處是故鄉 남이는 가는 곳마다 바로 고향인 것을  
幾人長在客愁中 그 몇이나 객수 속에 오래 있었나  
一聲喝破三千界 한 소리 크게 질러 삼천세계 깨닫거니  
雪裡桃花片片紅 눈 속에 복사꽃이 조각조각 붉자구나<sup>31)</sup>

생사의 시름에 간혀 있는 나그네와 달리 ‘남아’는 가는 곳마다 고향인데, 이것은 깨달은 자에게 생사는 둘이 아니기 때문이며, 불성이 온갖 곳에 충만한 것이 흰 눈 속의 붉은 복사꽃처럼 뚜렷하기 때문이다. 불성은 법계에 충만하며 오고 감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깨쳤던 만해가 불성이 오고 간다고 말했을 리 없다.

타락한 세상에 신은 있지 아니 한다는 기독교적 세계관이나 오늘날의 세계는 신성의 빛이 사라진 궁핍한 시대라고 보는<sup>32)</sup> 서양 형이상학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만해시의 ‘님’은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진리’나 ‘존재의 가능성’, 혹은 ‘존재’로 해석되었던 것이며, 만해시에는 본연의

29) 한용운, 『불교대전』, 『한용운 전집』 3, 62-65쪽.

30) 조명기, 『한용운의 저서와 사상』, 『한용운 전집』 3, 10쪽.

31) 오도송의 해석은 최동호, 『한용운』, 건국대학교출판부, 1996, 23쪽에 따랐다.

32) 마르틴 하이데거, 『숲길』, 신상희 옮김, 나남출판사, 2008, 395-397쪽 참조.

모습이 결여된 현실을 부정하는 ‘부정의 변증법’이 작용하고 있다거나, 혹은 오동잎, 푸른 하늘, 향기와 같은 존재지는 ‘존재의 드러남’이라고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sup>33)</sup> 만해의 시를 읽기 위해서는 헤겔의 변증법이나 하이데거의 존재론이 아니라 불교사상, 특히 불성이 온갖 곳에 충만하며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불성이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sup>34)</sup>

만해시의 님은 연인이나 형이상학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다음에는 님이 중생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나는 나루스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음니다  
나는 당신을 안시고 물을건너감니다  
나는 당신을안으면 김흐나 엇흐나 급한여을이나 건너감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쫓고 눈비를마지며 밤에서나갓가

33) 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127-130쪽 및 김준오, 『시론』, 68-77쪽 참조. 헤겔의 변증법이 절대정신이라는 실체의 자기전개를 설명하는 실체의 변증법이라면, 실체개념의 부정에서 출발하며 미혹에서 깨달음으로의 이행을 보여주는 불교의 변증법은 실체 없는 변증법이며 인식방법상의 변증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스에끼 다케히로, 『동양의 합리사상』, 이효상 옮김, 대원정사, 1987, 107-109쪽 참조.

34) 김인환은 “한용운의 문학을 불교사상의 표현이라고 하면서도 불교의 기본교리조차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용운의 님을 철학적 절대자와 유사한 형태로 왜곡시키는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 그는 님을 ‘사람’(『논개의 애인이 되어 그의 묘에』 나오는 ‘참된 사람’과 『가지 마세요』에 나오는 ‘보통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는 기존의 견해에서 한 걸음 나아간 해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해의 시 『가지 마세요』를 불교사상이 반영된 시로 읽는 등(김인환,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읽는다』, 104-112쪽 참조.) 님의 정체를 밝히는 데는 미흡한 것이었다. 만해의 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불교사상으로 그의 시를 읽을 경우 그의 시를 왜곡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지 당신을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건드면 나를 도려보지도안코 가십니다 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줄만은 아려요  
나는 당신을기다리면서 날마다날마다 낚어잡니다

나는 나루스배  
당신은 행인

- 「나루스배와행인」 전문.

만해가 선사라는 점에서 이 시를 불교사상과 관련하여 해석하면, 시적 화자는 불보살과 같은 존재이며, 이런 시적 화자를 훑발로 짓밟는 무지한 ‘당신’은 중생이라 할 수 있다.<sup>35)</sup> 그러나 시집의 통일성을 고려한다면 이런 불교적 해석은 이 시의 겉모습에 불과하다. 이 시의 ‘당신’을 만해의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조국이라고 볼 때 「나루스배와행인」은 조국이 나를 짓밟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시가 된다. 만해의 삶에 비추어볼 때 조국이 나를 짓밟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조선의 승려탄압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일제의 동화정책에 동조한 친일불교를 반대하였던 임제종 운동의 실패,<sup>36)</sup> 민족지도자의 변절, 민족해방운동노선의 갈등<sup>37)</sup> 등 만해가 국권회복운동에서 맛보게 된 고통과 좌절, 소외감과 관련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낚아간다는 말도 만해의 소외감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 시적 화자를 짓밟는다거

35) 김종인,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나남, 2008, 122쪽 참조.

36) 만해의 국권회복운동 가운데 임제종 운동에 대해 살펴보면, 만해의 임제종 운동은 통설과 달리 원종을 분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종에 의해서 통합되고 복속되었으며, 이 결과 만해가 종단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하였다.(고재석, 「마른 국화와 매운 풍란화」, 『한국현대시인론』, 시와시학사, 1995, 36-37쪽 참조.)

37) “3·1운동은 무장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1운동은 민족대표의 비폭력운동에 한계를 깨달은 학생·농민·노동자 등이 주도하는 과정에서 폭력으로 나아갔지만 조직화·무장화하지 못함으로써 큰 희생을 치렀다. 이에 만주와 연해주로 망명한 시위 참가자들은 1910년대에 만들어진 독립군 단체에 참가해 무장항쟁에 나섰다.”(『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 141쪽.)

나 돌아보지 않는다는 표현을 고려할 때 만해가 조국의 해방을 위해 노력하던 과정에서 느꼈던 허탈감이 낡아간다는 말에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시는 그러나 ‘나루스배’라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고자 하는 다짐으로 끝나고 있다.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것은 천명을 따르겠다는 것을 뜻하며, 그것은 곧 천인합일의 경지라 할 수 있다. 1연과 4연은 2연과 3연을 감싸고 있으면서 2, 3연의 긴 설명과 달리 절벽처럼 끊어져 있어서 그 어떤 인간의 세속적인 감정도 이와 같은 비원에 끼어들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만해의 조국에 대한 사랑은 종교적 경지로까지 승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38)</sup>

이 시의 낡아간다는 말은 시적 화자가 김종인의 지적처럼 불보살과 같은 삶의 자세를 지니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시의 1연과 4연이 동일하다는 것은 이 시의 구조가 목적론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적 관점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sup>39)</sup> 낡아간다는 말은 부처가 발견한 진리인 四聖諦 가운데 하나인 생로병사의 苦諦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국의 국권이 회복되고 민족이 하나가 될 것을 기다리던 만해가 느꼈던 쓸쓸함은 무엇보다 인간의 실존적 한계에 대한 느낌일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실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감에 충실하겠다는 만해의 불보살 같은 서원일 것이다.

님을 연인, 불타, 형이상학적 진리, 중생 등을 뜻하는 상징으로 보는 해석은 만해시의님을 가장 잘 설명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만해의 삶과 사상, 그리고 시작품과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님의 침묵』에서 님의 의미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38) 한계전은 만해의 시 「님의 침묵」을 해설하면서, “이 시에 나타난 정신은 종교적 경지로까지 승화된 애국의 신앙이라 할 만하다”고 본 바 있다.(한계전, 『한계전의 명시 읽기』, 문학동네, 2007, 1판 11쇄, 368쪽.)

39) “만해시에서 만남은 필연적이고 목적적이며 이별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신념이었다.”(김준오, 『시론』, 245쪽.)

없다는 점, 만해시의 님이 조국을 뜻할 뿐만 아니라, 시에 따라서는 조국의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산하(‘토지’), 민족(동료 승려, 민족 지도자, 대중 혹은 영웅적 인물 등의 ‘인민’)을 뜻하는 것으로 변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는<sup>40)</sup>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님을 상징으로 보는 이론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만해시에서 님은 조국일 뿐만 아니라 시에 따라서는 조국의 제유인 산하, 민족을 뜻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만해시의 알레고리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 알레고리의 일반적 성격과 달리 복잡한 만해시의 알레고리는 알레고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시를 읽는 보다 섬세한 안목을 요구한다.

바람도엮는공중에 수직의파문을내이며 고요히써러지는 오동닙은 누구의발자취임닛가  
 지리한장마삿해 서풍에몰너가는 무서운검은구름의 터진틈으로 언뜻 언뜻보이는 푸른하늘은 누구의얼굴임닛가  
 (중략)  
 타고남은재가 다시기름이됩니다 그칠줄을모르고타는 나의가슴은 누구의밤을지키는 약한등불임닛가  
 - 『알스수업서요』에서.

님의 정체를 감추면서 드러내려는 만해의 의도는 ‘알스수업서요’라는 시의 제목과 ‘누구’라는 인칭 대명사와 의문문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조국의 산하에 대한 사랑은 조국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수수께끼 형식을 빌려 보여주는 절묘한 알레고리적 수법의 작품이다.<sup>41)</sup> 그 조국이 ‘밤’, 즉 시련의 시기를 맞고 있으며, 시적 화자는 ‘약한 등불’과 같은 실

40) 만해는 국가의 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국가의 요소 즉 토지 인민 정치”(한용운, 『조선독립의 서』, 『한용운 전집』 1, 불교문화연구원, 2006, 359쪽.)

41) “알레고리는 겉의 이야기와는 다른 뜻을 밑에 까는 수법을 지칭하는데, 수수께끼란 알레고리의 극단적인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이일환, 『수사술에 대하여』, 『알레고리와 아이러니 사이』, 한신문화사, 1999, 62쪽 참조.)

존적 한계를 지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밤을 밝히고 싶다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이 나의 가슴 속에서 끝없이 타고 있음을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라는 역설<sup>42)</sup>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만해시를 ‘證道歌’, 즉 깨달음의 체험이나 형이상학적 진리를 노래한 것으로 이해하면 「님의 침묵」의 ‘악한등불’은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체험이 아니라 “부분적 깨달음”으로 해석되는데,<sup>43)</sup> 이와 같은 해석은 만해의 깨달음과<sup>44)</sup> 모순된다는 점에서 만해시의 님은 불타나 형이상학적 진리로 볼 수 없으며,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민족에 대한 사랑과 견성에 대한 체험이라고 본 송옥의 두 가지 알레고리적 해석 가운데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기쁨과 고통이 뒤섞인 3·1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표현한 알레고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만해의 조국사랑에는 실존적이거나 사회-역사적인 한계체험이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님의 침묵」의 날카로운 키스, 「나루배와행인」의 짓밟는 당신을 안고 건너감, 「알수 업서요」의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된다는 것은 모두 그의 고통스러운 조국사랑에서 비롯된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다.

만해의 민족에 대한 사랑은 영웅에 대한 찬양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대중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논개와 계월향에 대한 사랑이 영웅에 대한 찬양이라면, 「가지마서요」란 작품은 대중에 대한 비판적 사랑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42) “아이러니란 역설의 한 형태이다.”(『아이러니』, 41쪽.)

43) 김준오, 「현대시와 선사상」, 『현대시의 환유성과 메타성』, 17-18쪽.

44) 한용운의 깨달음을 “自內證의 첫걸음”(고은, 『한용운평전』, 238쪽.)으로 보는 평은 만해의 사자후를 듣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며, 만해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영운조사는 桃花를 보고 견성하였느니 그것은 누구라도 아는 일이지만, 영운이 도화를 보고 견성할 때에 그 도화가 영운을 보고 견성한 줄은 천고에 아는 사람이 없느니 그것은 一大恨事다.”(김관호 편, 『한용운 수상록』, 신구문화사, 1976, 192-193쪽.)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님은 조국의 알레고리였다. “님은갓지마는 나는 님을보내지 아니하얏습니다”라는 아이러니는 국권상실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독립이라는 당위성을 믿고 있는 그의 유심론적 독립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며,<sup>45)</sup> 날카로운 키스, 돌아보지 않는 당신을 기다리며 낱아감, 재가 다시 기름이 된다는 것도 고통스런 조국 사랑에서 오는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표현이며, ‘리별은 美의創造’(‘리별은 미의창조’) 역시 국권상실의 슬픔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역설적 표현인 것이다.<sup>46)</sup>

### Ⅲ. 이데올로기 비판의 정치시학과 산문적 진술

만해의 불교적 세계관은 현실과 거리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만해시의 아이러니와 역설, 그리고 여기서 살펴볼 이데올로기 비판은 이상과 현실의 거리를 좁히려 하는 만해의 실천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때문에 그의 시는 일종의 정치시라고 부를 수 있다.<sup>47)</sup>

45) 만해의 유심론적 독립사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것. “현재 우리 조선 사람이 정신상으로나 물질상으로나 무한한 고통을 받음은 사실이외다. 그러나, 이 고통을 물리치려고 없애려는 태도로 수단을 부리고 길을 취한다 하면, 고통은 점점 더할 것이외다. 근본적으로 이 고통의 탈 가운데서 뛰어나와 쾌락하게 평화롭게 영적 활동을 계속하여 가면 고통은 자연히 없어질 것이외다.”(『조선 및 조선인의 번민』, 『한용운 수상집』, 45쪽.)

46) 김현은 「이별은 미의 창조」가 “이별을 통한 개인의식의 양양이야말로 미의 창조이다”(김현, 「여성주의의 승리」, 『현대한국문학이론』, 146쪽.)라고 보았는데, 만해시의 사랑을 불교적인 ‘초월적 사랑, 비감각적 사랑’으로 보거나 이별을 예찬하는 만해시의 이별을 ‘실연의 탄식이 아니라 개인의 강렬한 승리’(같은 논문, 144-145쪽 참조.)로 본 것은 만해시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7) “현실과 이념은 정치의 영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범주이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인류의 역사는 양자간의 차이를 좁혀보려고 하는 고난에 찬 도정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에는 언제나 주인공이 있었다. 14세기 한반도에서 주자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현실을 변혁시킨 거대한 시도

불교는 탈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민평등의 원칙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정의실현을 구극적 목표로 삼는 불교정치철학을 지니고 있다.<sup>48)</sup> 이런 비이기적인 이상사회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사회의식과 행동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불교의 정치이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sup>49)</sup> 『님의침묵』에 1920년대 조선 사회의 부정적 상황이나 부정적인 현실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다.

이데올로기가 사회적 지배의 지적 정당화와 관련된 말이라면,<sup>50)</sup> 이데올로기 비판이란 말은 인식과 행동의 기반이 되는 지식체계 안에 은밀하게 작용하는 권력을 해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sup>51)</sup> 적대계급의 정신적 무장을 해제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sup>52)</sup> 지배와 폭력의 현상들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가면을 벗겨내고 해방을 지향하는 비판적 관심과 관련되어 있다.<sup>53)</sup> 불교가 이데올로기적 왜곡과 은폐를 비판하는 데 적합한 인식방법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불교사상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연기론이 실체를 부정하는 관계성의 철학이며, 불교 인식론이 미혹에서 깨달음으로의 이행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의 소의경전인 금

---

가 있었을 때, 정도전이라는 대정치가가 탄생했던 것이다.”(최상용·박홍규, 『정치가 정도전』, 까치글방, 2007, 248쪽.) 만해가 정치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만해의 다음 글을 참조. “남아 일세에 나서 승으로 그 생애를 마치고만 말 것인가. 우리 앞에는 정치적인 무대는 없는가. 그것이 없기에 나는 승이 된 것이나 아닐까.”(「나는 왜 승이 되었나, 『한용운 수상집』, 139쪽.)

48) 심재룡, 「불교와 사회」, 『사회와 인식』,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민음사, 1984, 78-79쪽 참조.

49) 피야세나 닷사나야케, 『불교의 정치철학』, 정승석 옮김, 대원정사, 1987, 195쪽.

50) J. 라레인, 『현대 사회이론과 이데올로기』, 한상진·심영희 옮김, 한울, 1984, 27쪽 참조.

51) 한상진, 「역자 서문」, 『현대사회이론과 이데올로기』, 22쪽.

52) 이극찬, 『정치학』, 범문사, 1975, 209쪽 참조.

53) 폴 리콰르,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박병수·남기영 편역, 아카넷, 2004, 360-367쪽 참조.

강경의 즉비의 논리는 고정된 사고체계를 해체하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 위한 논리라 할 수 있다.

만해가 비판했던 식민지 시대의 부정적인 사회현상과 이데올로기적 왜곡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어머니의 가슴에 머리를숙이고 자괴자괴한사랑을 바드라고 빼  
죽거리는입설로 표정하는 어엿븐아기를 싸안으라는 사랑의날개가 아니라  
적의기발입니다

그것은 자비의백호광명이아니라 번득거리는 악마의눈(眼)빛입니다  
(중략)

아아 님이어 위안에목마른 나의님이어 거름을돌니서요 거기를가지마  
서요 나는시려요

(중략)

아아 님이어 새생명의꽃에 취하라는 나의님이어 거름을돌니서요 거  
기를 가지마서요 나는시려요

(중략)

아아 님이어 정에순사하라는 나의님이어 거름을돌니서요 거기를가지  
마서요 나는시려요

그나라에는 허공이업습니다

그나라에는 그림자업는사람들이 전쟁을하고잇습니다

그나라에는 우주만상의 모든생명의쇠사대를가지고 척도를초월한 삼  
엄한퀘도로 진행되는 위대한시간이 정지되앗습니다

아아 님이어 죽음을 방향이라고하는 나의님이어 거름을돌니서요 거  
기를가지마서요 나는시려요

- 「가지마서요」에서.

만해가 비판하는 대상은 ‘그것’이란 말 속에 숨겨진 채 그 정체가 대단히 모호하다. ‘위안에목마른 나의님’, ‘새생명의꽃에 취하라는 나의님’,

‘정에순사하라는 나의님’, ‘죽음을 방향이라고하는 나의님’이란 말을 통해 그것이 님에게 위안을 주면서도 취하게 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부정적인 대상이란 점을 어렵듯이 드러낼 뿐이다. 이 때문에 이 시에 나타난 ‘그것’이나 ‘거기’, ‘그나라’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새 생명의 꽃’을 근대문명을 나타낸다고 보면 ‘그것’의 정체는 의외로 쉽게 풀리게 된다. 위안을 주면서도 정과 죽음에 대한 애호를 보여주는 근대문명은 놀이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10년대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는 신문, 잡지, 영화, 라디오, 연극 등 근대매체가 갑작스럽게 출현하였는데, 이 가운데 ‘그것’은 일본에서 수입된 눈물의 신파연극일 가능성이 있다.

신파의 눈물-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일본 신파극의 눈물을 수입한 것이다. 가정비극에 흘리는 눈물은 한 마디로 봉건성의 암흑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며, 그것은 흘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며 위안이 된다는 것 외에 아무 의미도 없는 눈물, 말하자면 인간적 무력감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기 위한 감상의 눈물이었다. 경술년(1910)에 나라를 잃은 이 나라 민중들에게 소개되어 뿌리를 내린 신파비극은 테마 자체가 대부분 그러한 감상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일뿐더러 혹은 사대주의, 혹은 비장취미, 혹은 웃음보다 눈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상 등을 반영하여 만남의 기쁨보다는 이별의 슬픔을, 삶보다는 죽음을, 사랑보다는 희생을, 저항보다는 인종을 집요하게 표현하고 찬미하였던 것이다. 천황의 군대로 강점하고 탄압한 그들이 민중(민족)의 인간적 무력감을 신파의 눈물로 달랬다는 것은 바로 병 주고 약 주는 격의 시니컬한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었다.<sup>54)</sup>

이두현의 신파극에 대한 설명은 1910년대에 상연되어 대성황을 이루었던 체념과 비애의 가정비극인 「눈물」, 「쌍옥루」, 「불여귀」 등의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이들 신파극의 내용은 감상의 눈물, 위안, 죽음에 대

54) 이두현, 『한국연극사』, 학연사, 1997, 226-227쪽.

한 찬양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만해가 비판하였던 ‘그것’의 내용과 일치한다. 만해는 이들 신파극이 나라를 잃은 조선의 민중에게 일시적인 위안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 위안은 정에 순사하는 것이며 죽음을 방향으로 잘못 알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눈물의 신파비극, 그것은 사랑의 날개가 아니라 적의 깃발이며 악마의 눈빛이고 칼의 웃음이라는 것을 만해는 꿰뚫어보았고, 시 「가지마서요」를 통해 그것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만해시를 읽기 위해서는 시작품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배경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의 ‘아아, 님이여 죽음을 방향이라고 하는 님이여’를 “완전한 해탈의 경지”(이상섭)로 해석하게 되면 이 시는 “막막히 감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해할 수 없는 시가 되고 만다. 김인환은 이 시가 “불교의 교리로 볼 때 허공과 바다는 공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며, “넷째 연에는 한용운의 불교사상이 직접 토로되어 있다”고 잘못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그림자 없는 사람’을 사사로운 욕정에 묻혀 있는 사람답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非人’이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非人の 전쟁을 시대배경과 관련시켜 “침략주의자들의 노략질을 의미”한다고 보고, “개인에게 방향인 것이 민족의 죽음으로 통할 수도 있다는 시대인식”(김인환)을 읽어내기도 한다.<sup>55)</sup> 물론 이 시의 ‘그나라’의 ‘그림자없는사람’이란 김인환의 해석과 달리 연극 속의 등장인물이며, ‘거기’란 극장을 가리키는 말이겠지만, 김인환의 해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만해시를 해석할 때 불교사상보다 시대인식과 관련시킬 때 만해가 말하고자 하는 님의 참된 의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당신을기다리고있는것은 기다리고자하는것이아니라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55) 김인환,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읽는다』, 110-111쪽 참조

말하자면 당신을기다리는것은 정조보다도 사랑입니다

남들은 나더러 시대에뒤진 낡은여성이라고 뼈죽거립니다 구구한정조를지킨다고  
(중략)

그러나 구경, 만사가 다 저의조아하는대로 말한것이오 행한것입니다  
나는 님을기다리면서 괴로움을먹고 살이집니다 어려움을입고 크기됩니다  
나의정조는「자유정조」입니다

- 「자유정조」에서.

남들은 자유를사랑한다지마는 나는 복종을조아하여요  
자유를모르는것은 아니자만 당신에게는 복종만하고싶혀요  
복종하고싶흔데 복종하는것은 아름다운자유보다도 달금합니다 그것  
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사람을복종하하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업습니다  
다른사람을 복종하라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업는 까닭입니다  
- 「복종」 전문.

여성의 수동성이 드러나는 작품으로 흔히 해석되는 이 두 시는 정조라는 모티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읽어야 할 작품이다. 1920년대 초반의 식민지 조선에서는 ‘성적 혁명’(염상섭)의 시기라 지칭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모더니티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sup>56)</sup> 연애서한문집이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며 연애라는 새로운 현상을 중심으로 소비시장이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이기훈, 「독서의 근대, 근대의 독서」)였다.<sup>57)</sup> 이런 시

56) 진영복, 「성의 모더니티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어문논총』 4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8, 260쪽.

57) 이선이, 「만해의 불교근대화운동과 시집 『님의 침묵』의 창작 동기」, 『한국시학

대적인 문화 현상을 고려할 때, 만해가 이들 시를 창작한 것은 당대의 연애편곡을 비판하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sup>58)</sup> 사실은 조국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 밑에 깔려 있다.

이세상에는 길도 만키도합니다  
(중략)

그러나 나의길은 이세상에 들받게업습니다  
하나는 님의품에안기는 길입니다  
그러치아니하면 죽엄의품에안기는 길입니다  
그것은 만일 님의품에안기지못하면 다른길은 죽엄의길보다 험하고  
괴로운싸닭입니다

- 「나의 길」에서.

3·1운동이 일어난 직후 민족운동가들은 반일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계몽운동을 펼쳐 나갔으나, 1922년 경부터 즉각독립론을 유보하고 실력양성운동이 대두하게 되었으며, 이마저도 어렵게 되자 1923년 가을 김성수 송진우 최린 이광수 등은 자치운동을 모색하게 되었다. 일본의 주권 하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운동, 즉 자치운동론을 제기(1924.1, 이광수의 논설 「민족적 경륜」)하였고,<sup>59)</sup> 이 타협적 개량주의적 운동 노선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은 물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도 강력

---

연구』 11집, 2004, 153쪽 참조. 이 논문의 연애서한문집에 대한 설명은 이기훈의 「독서의 근대, 근대의 독서」(『역사문제연구』 제7호, 역사문제연구소, 2001)의 연구 성과를 인용한 것이다.

58) 이선이, 「만해의 불교근대화운동과 시집 『님의 침묵』의 창작 동기」, 153쪽.

59) “계몽운동가들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서구의 근대문물을 받아들여 부국강병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만 여겼기 때문에 일본의 통감정치도 우리나라가 문명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받아들였다.”(『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 역사학연구소, 서해문집, 2004, 초판 2쇄, 95쪽.)

히 반론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운동방향을 모색하였다는 점,<sup>60)</sup> 한용운이 1920년대 중반 사회주의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세력이 힘을 합쳐 결성한 최초의 반일민족통일전선이었던 신간회의 회원이었고, 신간회의 강령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만해는 위의 작품을 통해 길으로는 자유연애를 비판하거나 여성의 자학적 복종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회주의적이고 타협적인 민족개량주의를 비판하고 조국에 대한 사랑만이 국권회복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의편지가 왔다기에 약을다리다말고 췌여보았습니다  
그편지는 당신의주소는 다른나라의군함입니다  
만일 님이쓰신편지이면 남의군함에잇는것이 사실이라할지라도 편지  
에는 군함에서췌났다고 하얏슬터인데

- 「당신의편지」 3연.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00년대 초반 일제가 모든 반일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자신들의 침략정책에 맞서지 않는 문화운동만을 허용했을 때, 일부 계몽운동가들이 국권을 잃어버린 것이 제국주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실력이 모자란 탓이라는 사회진화론의 인식을 보이거나,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서구의 근대문물을 받아들여 부국강병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기 때문에 일본의 통감정치도 우리나라가 문명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였던 점을 알 필요가 있다.<sup>61)</sup> ‘군함’이 제국주의를 상징한다고 볼 때, 이 시는 우승열패의 진화론 사상과 부국강병을 주장하는 개화파의 사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만해의 의도가 예들러 표현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60)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초판 13쇄, 263-264쪽 참조.

61) 역사학연구소,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 서해문집, 2004, 89-96쪽 참조.

나는 집도업고 다른싸닭을검하여 민적이업습니다  
「민적업는자는 인권이업다 인권이업는너에게 무슨정조냐」하고 능욕  
하라는장군이 잇섯습니다  
그를항거한뒤에 남에게다한격분이 스스로의습음으로화하는찰나에 당  
신을보았습니다  
아아 원갓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황금을제사지내는 연기인줄을 아  
렸습니다  
영원의사랑을 바들스가 인간역사의첫페이지에 잉크칠을할스가 술을마  
실스가 망서릴때에 당신을보았습니다  
- 「당신을보았습니다」 3연.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민적’이 없고, 정조가 없다며 능욕하려는 ‘장군’<sup>62)</sup>을 항거했다는 점에서 만해의 삶과 일치한다. ‘민적업는자는 인권이업다 인권이업는너에게 무슨정조냐’는 복속된 자들의 역사적 운명을 보여준다.<sup>63)</sup> 이 시는 “일제하의 정치 현실에 대한 고발”(김우창)이며, 칼과 황금이 상징하는 현실적인 권력에 아부하는 윤리, 도덕, 법률을 비판함과 동시에 영원의 사랑이 상징하는 종교적 초월과 인간 역사에 잉크칠을 하는 폭력투쟁, 그리고 국권회복에 대해 절망하는 삶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타골의시(GARDENISTO)를읽고」와 「선사의설법」이란 작품은 역사와 사회를 외면하는 종교의 초월적 삶에 대한 비판이다. 「타골의시(GARDENISTO)를읽고」란 작품에 대해서는 송욱의 해석에 맡기겠지만,<sup>64)</sup> 만해가 타고르의 님과 자신의 님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사실

62) “장군은 일제의 무력통치를 의미한다. 이 행은 일제가 한국인의 인권을 부정하고 능욕하고 있음을 고발한다.”(한계전 편저, 『한용운의 님의 침묵』, 49쪽.)

63) “시민권과 주체성이라는 특권을 갖고 있는 식민 지배자들과는 달리, 식민지인들은 주로 복속된 이들로 또는 복속 상태에 매여 있는 자들로서 존재한다. 인도에서의 민족주의 투쟁은 이 이류 시민 사회에 복속된 이들의 거부-주체성을 위한 투쟁-에서 시작되었다.”(릴라 간디, 『포스트 식민주의란 무엇인가』, 이영욱 옮김, 현실문화연구, 2000, 205쪽.)

64) “일생을 수도와 민족운동에 아울러 바친 만해가 보기에는 사회와 역사적 사명을 벗어나서 절대적 원리에만 봉사하는 생활은 ‘깨어진 사랑’에 울고 혹은 ‘떨어

은 알 필요가 있다.

벗이여 부끄럽습니다 나는 그대의노래를 드를때에 엇더케 부끄럽고  
떨너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님을썬나서 홀로 그노래를 듣는까닭입니다  
- 「타골의시(GARDENISTO)를읽고」의 마지막 연.

타고르가 인도전통철학(베다나 우파니샤드)의 절대자를 동경하고 탐구한다면,<sup>65)</sup> 만해는 고통스런 현실 속의 조국과 민족을 노래한다. 불교철학에 따르면 불성은 상주하고 법계에 충만하며 오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떠나고 싶다고 해서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타골의 초월자나 피안에 대한 열정의 노래는 그것이 비록 ‘황금의 노래’라고 할지라도 ‘무덤’을 그물 치는 ‘백골의향기’이고, ‘절망인희망의노래’인 까닭은 그것이 ‘님’, 즉 조국의 고통스런 현실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 왜곡의 주요 근원은 역사를 무시하는 데 있다”<sup>66)</sup> 점을 고려할 때, “사회와 역사적 사명”이 없는 『원정』의 시를 읽는 것은 만해에게 부끄럽고 떨리는 경험이었던 것이다.

김윤식은 송옥이 “타고르에게는 사회와 역사가 없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러한 견해는 타고르의 『원정』만을 대상으로 할 때 지극히 올바른 것”이지만, “타고르에게는 『원정』만이 그의 저작의 전부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송옥과 만해를 비판하고 있다. 김윤식은 만해가 “『불교유신론』을 쓰고 「3·1운동이유서」를 썼다는 것은 『님의 침묵』과 별개의 차원”이라고 본다. 김윤식이 만해의 님의 정체성을 오해하고 만해의 시를 잘못 읽고 있다는 것은 그가 타고르의 님과 만해의 님을 비교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그는 타고르가 그 대상에 대해 따뜻함과 기쁨을 갖고

진 꽃을 슬퍼하는 것과 같다.”(송옥, 『시학평전』, 일조각, 1971, 312쪽.)

65) 송옥, 『시학평전』, 300-305쪽 참조.

66) J. 라레인, 『현대사회이론과 이데올로기』, 249쪽.

있는 것과 달리 만해는 싸늘함과 원망과 자학이 깔려 있고, 타고르가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면 만해는 전통적인 한국인의 인종에 닿아 있으며, 만해의 타고르 비판은 타고르 사상 전체를 몰각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경감된다고 보고 만해의 한계를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67)</sup> 그러나 신과의 합일을 통한 초연한 삶을 노래하는 『원정』의 세계는 조선 민중의 고통스런 삶과 조국의 독립에 애썼던 만해에게 당연한 비판의 대상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만해의 님이 타고르의 님과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님을 같은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며, 민족이 없는 보편이 어떤 보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인도가 독립을 이룬 오늘날에도 계급사회의 모순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만해의 타고르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만해에게 중요한 것은 절대가 아니라 상대인 고통스런 세상이며 역사이다. 이 점에 대해 「선사의 설법」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나는 선사의설법을 드렸습니다

「너는 사랑의죄사슬에 묶겨서 고통을받지말고 사랑의줄을쓴어라 그러면 너의마음이 질거우리라」고 선사는 큰소리로 말하셨습니다

그선사는 어지간히 어리석습니다

사랑의줄에 묶기는것이 압호기는 압호지만 사랑의줄을쓴으면 죽는것보다도 더압흔줄을 모르는말입니다

사랑의속박은 단단히 열거매는것이 푸러주는것입니다

그럼으로 대해탈은 속박에서 엮는것입니다

님이어 나를엮은 님의사랑의줄이 약한가버서 나의 님을사랑하는줄을 끊드렸습니다

- 「선사의설법」 전문.

67) 김윤식, 「문화수용과 사상」, 『근대한국문학연구』, 217-227쪽 참조.

이 시는 참된 자유란 무엇인가를 묻는다. ‘대해탈은 속박에서 잇는것’이란 역설은 진정한 자유는 거룩한 필연성과의 일체에 있다는 셸리의 자유론과 통하며,<sup>68)</sup>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란 요한복음의 말이거나, “불교에 있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주자연의 법칙을 깨닫고 이에 따르는 것이다”란 말과 같은 것이다.<sup>69)</sup> 진정한 자유는 ~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에로의 자유인 것이다.

만해가 선사를 비판하는 것은 “원래 불교는 계급에 반항하여 평등의 진리를 선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사의 설법은 고통스런 현실을 떠나고자 하는 ‘적멸불교’의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sup>70)</sup> ‘석가모니의 본의’에 돌아가고자 하는 이 시는 일종의 종교비판이다. “종교비판은 모든 비판의 선행조건”(마르크스)이며, 종교비판에서 이데올로기 개념이 나온 것을 고려할 때,<sup>71)</sup> 만해의 선사의 설법에 대한 비판은 인도전통철학이나 ‘적멸불교’와 같은 초월적 종교사상을 비판하는 것이다.

만해의 민중불교사상에 따르면 “무한한 생명은 곧 유한한 이 진세에 실현하는 것”이고, 절대는 상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만해의 거룩한 필연성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어니날밤에 잠업는꿈을 꾸엇습니다  
 「나의님은 어데잇셔요 나는 님을보러가것습니다 님에게가는길을 가  
 저다가 나에게주셔요 겁이어」  
 「너의가라는길은 너의님의 오라는길이다 그길을가저다 너에게주면  
 너의님은 울수가업디」  
 (중략)

68) 최신환, 「자연의 자유와 자기의 자유」, 『철학』 51집, 한국철학회, 1997, 170쪽 참조.

69) 岡本清一, 『자유와 문제』, 편집부 옮김, 진흥문화사, 1983, 15쪽.

70) 한용운, 「불교유신회」, 『한용운 수상집』, 61-64쪽 참조.

71) J. 라레인, 『현대 사회이론과 이데올로기』, 48쪽 참조.

「그러면 잊지하여야 리별한님을 만나보겠습닛가」  
「네가 너를가져다가 너의가라는길에 주어라 그리하고 쉬지말고 가거  
라」  
「그리할마음은 잊지마는 그길에는 고개도만코 물도만습니다 갈수가  
업습니다」  
검은 「그러면 너의님을 너의가슴에 안겨주마」하고 나의님을 나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나의님을 힘껏 썬안었습니다  
나의팔이 나의가슴을 압흐도록 다칠때에 나의두팔에 베혀진 허공은  
나의팔을 뒤에두고 이어젧습니다

- 「잠없는꿈」에서.

이 시에 대해 김우창은, 이 시에 몇 겹으로 사려 있는 정반의 논리를  
일일이 풀어내기는 쉽지 않지만, 시의 대화는 후반으로 계속되면서 정진  
가운데 있는 돈오를 말하다가 결론 부분에서 다시 뒤집어지면서 ‘궁극적  
인 님은 썬이요 無이다’라고 말하는 작품이며, 개체와 보편성의 문제를  
다룬 시로 본 바 있다.<sup>72)</sup> 조동일은 자세한 작품읽기를 통해 “검이 나 자  
신이 아니고 어디 따로 존재하는 절대자이고, 빌고 의지하면 소원을 성  
취해 줄 수 있는 구원자라고 생각해 온 것이 커다란 착각이다”라고 올바  
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불교의 논리와 선종 문학의 전통 속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느낌으로 알 수는 없고 생각으로 깨쳐야 할 시인  
데, 생각으로 깨치려 하니 갈피를 잡기 어렵다”고 한 바 있다.<sup>73)</sup> 이와 같  
은 해석은 이 시에 불교사상이 표현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인데, 님의 정  
체를 모르고 이 시를 읽게 되면 이 시는 불교사상과 관련된 난해한 시가  
되지만, 님의 정체가 조국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 시는 그렇게 어려운 시  
가 아니다.

72) 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139-140쪽 참조.

73) 조동일, 「〈잠 없는 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용운 연구』, III-2-III-11  
쪽 참조.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대강의 내용은 신에게 빌어서 조국을 찾으려고 아무리 빌어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신이 주는 님을 껴안아보면 님은 없고 허공을 안을 뿐이라는 것이다. 신에게 빌어서 독립하려는 생각은 ‘잠업는꿈’, 다시 말하면 백일몽일 뿐이라며 기복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만해는 불교적인 용어와 비슷하지만 불교와는 무관한 유사불교용어를 사용한다든지 모호한 표현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숨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님의침묵』 곳곳에 시집을 읽는 열쇠를 숨겨 두었던 것이니, 주도면밀하고 친절한 만해스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님이여 당신은 백번이나단련한금결입니다  
 썩나무뿌리가 산호가되도록 천국의사랑을 바둑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이층벚의 첫거름이여

님이여 당신은 의가무거움고 황금이가벼운것을 잘아십니다  
 거지의 거친밭헤 복의씨를 뿌리웁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옛오동의 숨은소리여

님이여 당신은 봄과광명과평화를 조아하십니다  
 약자의가슴에 눈물을뿌리는 자비의보살이 되웁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어름바다에 봄바람이여

- 「찬송」 전문.

이 시의 ‘천국의사랑’을 “중도의 경지”(송옥)로 보기도 하고, 이 시가 가장 아름다운 긍정의 시이며 빛에 대한 열망을 표현한 시 중의 하나(김우창)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작품에 나타난 ‘님’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백번이나단련한금결’), 시적 화자의 님에 대한 소망이 표현된 2연과 3연의 내용이 당위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 역시 이상과 현실의 거리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님의 역사성

과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볼 때, 이 시는 조선민족은 열등하다는 식민주의 이데올로기, “허위, 비사회적 이기심, 나태, 無信, 겁나, 사회성의 결핍” 등 타락한 민족성 때문에 독립을 이룰 수 없다고 본 이광수의 조선민족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비판하면서 불굴의 기개와 이상적인 인생관, 자비와 너그러운 정신을 함께 지닌 조국에 대한 찬양과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74)</sup>

만해는 수많은 고난을 극복한 역사를 지닌 조국이 가야 할 길은 현실(‘황금’)을 넘어선 정의로움이며, 광명과 평화와 자비의 정신에 있다고 본다. 2연에서 만해는 ‘의’와 ‘황금’을 대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교의 인생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인 의로움과 이로움의 구분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사상에서 유교사상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sup>75)</sup> 그는 식민지로 전락한 조국이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것이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조국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1연, 2연, 3연에 걸쳐 반복되는 ‘넘이어 사랑이어’에는 그와 같은 조국에 대한 만해의 지극한 사랑이 드러나 있다. 우리 민족이 의로움과 복됨, 어짊(‘봄’)과 진리의 광명과 평화와 자비의 정신을 가지고 살기를

74) “일제는 조선인을 충성된 제국신민에 부끄럽지 않을 지위로 이끈다는 허울 아래, 식민사관에 따라 1915년 『조선반도사』를 편찬하고 ‘한일동조동근론’, ‘임나일본부설’, ‘정체성론’, ‘타율성론’ 등을 만들어 조선 역사를 왜곡 날조했다. 이는 조선의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고 민족의식을 말살시키려는 것이었다. 이광수는 1922년 5월 최린이 경영하던 『개벽』에 ‘민족개조론’을 실어 민족개량주의를 대중에게 선전하기 시작했다.”(『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 114-153쪽 참조.)

75) “인의를 실현하는 장으로서 역사를 이해하고 과거의 역사나 인물의 전기에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도덕적 전범을 세우는 중국인의 현세적 성격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경지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힌두교도의 초월적 성격과는 크게 다르다”(허우성, 「만해의 불교이해」, 『만해학보』 창간호, 만해학회, 1992, 65쪽.) 허우성은 만해가 인의를 무시하여 적멸지교로 타락한 조선전통불교를 개혁하려 하였고, 유가의 인의와 충효라는 덕목이 불교에서도 가르쳐지고 있다고 힘써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해의 불교 이해는 전통불교와 유가를 넘나들면서 성립된 것이며, 이러한 만해의 불교이해는 공의 정치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허우성, 같은 논문, 65-66쪽 참조.)

바라는 만해의 민족주의는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불교 민족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76)</sup> 조국과 민족에 대한 찬양과 사랑과 정치적 소명을 노래하는 이 「찬송」이란 시는 다음 작품과 함께 읽을 때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해진다.

세상은 비방도만코 시기도만습니다  
당신에게 비방과시기가 잇슬지라도 관심치마세요  
비방을조아하는사람들은 태양에 흑점이잇는것도 다행으로 생각합니  
다  
당신에게대하야는 비방할것이업는 그것을 비방할는지 모르것습니다

조는사자를 죽은양이라도 할지언정 당신이 시련을받기위하야 도적에  
게 포로가되얏다고 그것을 비겁이라고할수는 업습니다  
달빛을 갈뚝으로알고 흰모해위에서 갈마기를이웃하야 잠자는 기력이  
를 음란하다고할지언정 정직한당신이 교활한유혹에 속혀서 청투에 드러  
갓다고 당신을 지조가업다고할수는 업습니다  
당신에게 비방과시기가 잇슬지라도 관심치마세요  
- 「비방」 전문.

이 시에 대해 김종인은 “조선이 국권을 상실한 것은 조선인들이 적에게 맞설 용기가 부족하고, 외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지조가 부족한 때문인데, 만해는 이러한 잃어버린 민족적 자존심에 대해 변명하고 싶었던 것이다.”라고<sup>77)</sup>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것은 님이 이성의

76) “부처님은 전세계 인류 중 유독 조선 사람만을 구제하여야 하겠다는 사상을 가지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조그마한 국경이나 혈족에 구분을 지으실 이가 아닙니다. 천하의 모든 인류는 모두 평등하고 자유로운 거기에 이상이 있었을 따름이었겠습니다.”(한용운, 「석가의 정신」, 『한용운 수상집』, 144-145쪽.) 만해는 재산의 축적을 부인하고 경제상의 불평등을 배척하며, 소유욕 없이 살고자 했던 석가의 경제 사상을 ‘불교 사회주의’라 부른 바 있다.(한용운, 「석가의 정신」, 145쪽 참조.)

77) 김종인, 『날카로운 첫 사랑의 키스』, 204쪽.

연인이라는 그의 주장과 어긋나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만해가 말하고 싶었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만해가 비판하였던 것은 식민지시대의 눈물의 신과 비극, 우승열패의 진화론 사상과 부국강병을 주장하는 개화파의 사상, 권력에 기생하는 각종의 학문과 현실 초월적 종교사상, 폭력혁명 사상, 독립에 대해 절망적인 삶, 신에 기대어 독립을 바라는 기복적인 종교사상, 조선민족은 열등하다는 식민지 이데올로기 및 이광수 등의 조선에 대한 부정적 견해 등이었다. 이처럼 만해의 이데올로기 비판의 시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찾아가는 것이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이었다.

만해시가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인지 만해시에 이데올로기 비판적 성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으며, 이와 같은 시를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무엇을 노래하는지 알 수 없는 난해시로 이해되었을 따름이다. 그의 시집은 국권회복을 위한 사상 투쟁의 무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이며, 이와 같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언어의 절주를 중시하는 시에서는 기피’되는 ‘일상적 산문적 진술’이 요구되는 것이다.<sup>78)</sup> 한시와 시조를 창작한 바 있었던 만해는 자신의 자유시에 산문적 진술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이고, 또 자신의 조국에 대한 사랑이 일반적인 연애시와 달랐기 때문에 그는 즐거움이나 슬픔이나 사랑을 노래하는 서정시인이 되기에는 너무나 소질이 없다고(『예술가』) 하였을 것이다. 만해시에는 훌륭한 서정시도 없지 않다고 그의 시를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만해가 자신의 시는 서정시와 다르다고 한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이러니와 역설을 통해 이상과 다른 현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78) 김은전은 만해의 시 「예술가」가 비시적인 일상적인 산문적 진술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김은전, 「시교육의 성격과 목표」, 『현대시교육론』, 시와시학사, 1996, 19쪽.)

산문적 진술을 통해 거짓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만해시는 일종의 정치시라 할 수 있다.

#### IV. 시적 화자의 이중성과 남녀공용의 경어체

만해의 사상은 자유, 평등, 평화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불교사상이 그 토대가 되어 있다.<sup>79)</sup> 그가 독립을 위해 애쓴 것은 자유·평등·평화의 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제도가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sup>80)</sup>

만해는 『님의침묵』이란 시집을 통해 국가를 ‘님’으로 인격화하여 사랑하였고,<sup>81)</sup> 그 당시의 지배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면서 올바른 독립의 방법

79) “세상의 가장 이상적인 행복의 바탕은 자유와 평화에 있는 것이다. 평화의 정신은 평등에 있으므로 평등은 자유의 상대가 된다.”(한용운, 「조선독립의 서」, 이길진 역, 『한용운 수상집』, 10쪽.) “불교는 그 신앙에 있어서는 자신적이지요, 사상에 있어서는 평등이지요, 학설로 볼 때에는 물심을 포함, 아니 초월한 유심론이지요, 사업으로는 박애, 호제인바, 이것은 확실히 현대와 미래의 시대를 아울러서 마땅할 최후의 무엇이 되기에 족하리라 합니다.”(「내가 믿는 불교」, 『한용운 수상집』, 141쪽.)

80) “(불교는) 그 광명적 생명의 만족을 유일한 가치로 인정하는 점에 있어서 적멸인 듯하나 기실은 대충실이며 대활용이지요, 세상의 제도와 법률, 도덕으로 논할 지면 이 생명과 광명의 수시 발로하는 한 표현이라, 그 절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또한 귀하고 중한 것은 물론이니”(「불교유신회」, 『한용운 수상집』, 62쪽.) “사회, 국가의 운명은 곧 개인의 운명이다. 쇠퇴한 사회에 개인의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패망한 국가에 국민의 자유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사회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자기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요, 국가를 위하여 진취하는 것은 자기의 자유를 위하는 것이다.”(「공익」, 『한용운 수상집』, 236쪽.)

81) “사회도 한 인격이지요, 국가도 한 인격이다. 사회를 구성한 개인은 사회 인격의 지체이며, 국가를 구성한 인민은 국가 인격의 수족이다.”(「공익」, 『한용운 수상집』, 235쪽.) “원형으로서의 아니마, 아니무스는 그것이 투사되어 경험될 때 잘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술가, 시인은 자기의 아니마, 아니무스를 화폭이나 작품 속에 형상화한다. 아니마, 아니무스는 이념에 투사되기도 하고 물질에 투사

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의도를 직접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감추면서 또 한편으로는 드러내어 독자를 설득하려고 하였다. 이 때문에 그의 시는 서로 모순되는 목적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이른바 은폐와 설득의 수사학이란 특징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 은폐와 설득의 수사학과 관련하여 살펴볼 것은 우선 만해의 조국에 대한 사랑이 경어법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어법을 여성적인 어조와 결부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어법은 여성적인 어조와 일단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만해시의 화자는 남성과 여성이며, 이것은 주요한에 의해 “작중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대하여 부르는 것도 있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하소연하는 것도 많이 있다. 저자의 창조력 내지 상상력의 풍부함을 거기서 볼 수 있다”라고 올바르게 파악된 바 있다. 그러나 김현과 김윤식이 만해시를 ‘여성주의’나 ‘여성적인 편향’으로<sup>82)</sup> 파악한 이래 『님의 침묵』은 경어체의 여성어로 만들어졌다(고은), ‘여성적인 수동적 정서’(김재홍), ‘여성화자의 목소리로 발화되나 남성적이고 의지적인 핵심구조들을 숨기고 있는 담론’(배영애), ‘하위계층 여성’(서준섭)<sup>83)</sup> 등 만해시의 화자는 여성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만해시의 화자를 여성으로 보게 된 것은 무엇보다 그의 시가 사랑하

---

되기도 한다. 그 이념이 계몽사상이든 공산주의든 기독교 사상이든 혹은 낭만주의든 그것이 그의 아니마 또는 그녀의 아니무스 투사의 대상이 되면 그 이념들은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 임금이나 민족도 아니마 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1998, 개정증보판 1쇄, 88-89쪽.)

82) 김현, 『여성주의의 승리』,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민음사, 1972, 146쪽.

김윤식, 『근대한국문학연구』, 일지사, 1973, 447쪽.

83) 고은, 『한용운평전』, 민음사, 1975, 304쪽.

김재홍, 『한용운문학연구』, 일지사, 1982, 94쪽.

배영애, 『『님의 침묵』의 심층구조』, 이인복 편, 『작가의 이상과 현실』, 태학사, 1999, 405쪽.

서준섭, 『한국근대시인과 탈식민주의적 글쓰기』, 『한국시학연구』 13호, 한국시학회, 2005, 14쪽.

는 사람을 기다리는 부재의 담론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부재의 담론이라고 해서 시의 화자를 여성이라고 볼 수 없다. 만해시의 넘은 만해의 아니마가 투사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84)</sup> 만해시에서 만해의 목소리가 직접 드러나는 시는 논개와 계월향 그리고 타고르에 대한 시인데, 이들 시에 나타나는 어조가 “용서하여요 논개여 금석가튼 곳은 언약을 저바린것은 그대가아니오나입니다”, “무덤위에 피무든기대를 세우세요/그러나 죽은대지가 시인의노래를거쳐서 움직이는것을 봄바람은 말합니다”에서 보는 것처럼 여타의 시와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만해시의 화자를 여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이별하여 가까이 할 수 없는 논개와 계월향을 확대한 것이 조국이라고 본다면, 조국은 만해의 내면에서 여성의 이미지로 나타났던 것은 아닐까. 「님의침묵」의 ‘숫다운 님의얼굴’, 「알수업서요」의 ‘런숫가튼발꿈치’, ‘옥가튼손’ 등의 표현은 사랑의 대상이 여성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만해시의 시적 화자는 사랑에 빠진 남성이며 그 대상인 조국은 여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85)</sup> 만약 그렇다면 시에 여성화자가 명확한 시(「자유정조」, 「당신이아니더면」, 「생명」, 「진주」, 「당신은」, 「심은버들」, 「당신의편지」, 「달을보며」, 「인과율」, 「수의비밀」)가 아니라면 시적 화자를 남성화자로 보

84) “역사적으로 부재의 담론은 여자가 담당해왔다. 한곳에 머물러 있는 여자와 여행 중에 있는 나그네, 사냥꾼인 남자. 그러므로 부재에 형태를 주고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은 여자이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성의 표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부재를 말하고 기다리며 괴로워하는 남자에게도 모두 여성적인 것이 있음을 표명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재의 이유나 기간이 어떤 것이든 간에 부재를 말하는 담론은 부재를 버려짐의 시련으로 변형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시련을 겪는 나약한 존재의 위치에 있는 목소리는 여성적으로 울린다.”(곽명숙, 「《님의 침묵》에 나타난 사랑의 담론」, 『관악어문연구』 23집, 1998, 247쪽.)

85) 타고르의 시집 『원정』에 여왕 전하를 묘사하면서, “전하의 玉뿔이 옮겨지는 거름마다”라는 구절이 있으며(『원정』, 3쪽.), 『님의침묵』의 「논개의애인이되어야서그의묘에」에서는 논개를 묘사하면서, “옥가튼 그대의발꿈치에 밝히려는 강언덕의 묵은이끼는”이라는 구절이 있다.

고 만해시를 읽는 것이 만해의 조국에 대한 사랑을 보다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만해는 왜 여성화자를 시에 등장시켰던 것일까?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데는 여성화자가 더 적절하기 때문이겠지만, 조국을 찬양하고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만해의 남성적인 목소리가 직접 드러날 경우 검열을 통과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은폐하기 위해서도 여성화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조선의 여성잡지는 검열체계 안에서의 외곽성으로 인해 공적인 담론장에서 상대적 가시성을 가질 수 있었다. 식민지 당국에 대해 위협스러운 체제전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적 주체였던 남성보다, 관습적으로 상대적인 약세로 인식되어 있는 여성주체나 여성담론들이 식민체제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보다 합법적인 가시성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다. 합법적 출판조건으로서의 식민지 검열로 인해 일종의 특수담론이라 할 수 있는 여성담론이 남성주체들의 담론이나 남성주체가 주로 전제가 되어 있는 보편담론보다는 오히려 안정된 출판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을 지니고 공적 출판계로 들어온 것이다. 조선 출판계의 식민지적 특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학계에서 고려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검열의 구조적인 파생 효과로서 여성담론이 갖게 된 상대적 가시성이다.<sup>86)</sup>

월간 교양잡지 《유심》을 창간하여 발행하던 만해는 타고르의 글 「생의 실현」을 번역하여 싣고 있었는데, 1, 2호와 달리 3호에서는 인가가 나지 않았다. 『님의침묵』을 발간할 때 만해는 검열을 고려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감출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검열을 통과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여성화자였을 것이다. 검열 때문에 만해의 시집은 단순한 연애시라는 가면이 필요했던 것이다.

86) 최경희, 「젠더연구와 검열연구의 교차점에서-여성 및 근대 여성담론의 식민지적 특성에 대한 시론-」, 『일제 식민지 시기 새로 읽기』, 한국학의 세계화 사업단·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도서출판 혜안, 2007, 192쪽.

만해시의 여성화자가 검열을 통과하기 위한 방편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만해시의 여성화자가 남성보다 더 의지가 강하거나 비판적인 여성이며, 그 어떤 여성보다 더 주체적인 여성이기 때문이기도 하다.<sup>87)</sup> 이와 같은 여성화자는 만해가 그 당시 여성 해방 운동을 하는 신여성이 자각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여성의 자각을 여성 해방의 목적, 더 나아가서는 인류 해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소”라고<sup>88)</sup> 말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의 신여성에게서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만해시의 여성화자는 여성의 탈을 쓴 만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해시에서 경어체는 여성화자뿐만 아니라 남성화자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해시는 남녀의 대립을 초월하는 사랑의 형식을 경어체를 통해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김윤식은 한국시의 여성적 스타일이 타고르 시와 김억의 역시 스타일이 지닌 여성적인 스타일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sup>89)</sup> 만해시의 경어체는 여성적 스타일과 구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해가 영향을 받았다는 김억의 역시가 지닌 문체는 여성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구어체’이기 때문이다.

「기탄자리」의 때에도 한마디 하여두었습니다, 만은 타고아의 작품은 읽기는 쉽습니다, 만은 붓을잡고 움기게 될때에는 만흔 괴롭은 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문체에 대하여 적지안케 괴롭아하였습니다, 만은 기탄자리의 문체에 구어체를 쓴것보다도 훨씬 이 역고의 문체가 나흔줄로 맞습니다. 그것은 얼마큼이 「원정」은구어체로 움기는것이 원문에 갓잡은듯한 싸닭입니다.<sup>90)</sup>

87) 배영애는 만해시의 심층에 나타나는 정조는 그의 논설 등에 나타나는 강직한 남성의 목소리 그대로이며,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발화되나 남성적이고 의지적인 핵심구조들을 심층에 숨기고 있다고 본 바 있다.(배영애, 『『님의 침묵』의 심층구조 연구』, 『작가의 이상과 현실』, 404-405쪽 참조.)

88) 한용운, 「여성의 자각」, 『한용운 전집』 1, 284쪽.

89) 김윤식, 「한국시의 여성적 편향」, 『근대한국문학연구』, 471쪽.

90) (라벤드라나드 타고아 작, 안서 김억 역, 『원정』, 회동서관, 대정 13년, 1-2쪽.)

그(타고르)의 시기는 뱅갈어로는 (중략) 영창할만하야 여러 사람의 구두에서 고운 음조가 울어난다 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타고아시인이 시인되는 동시에 음악자인 까닭입니다. 그리하야 그는 몸소 자기의 노래에 음부를 만들어 거리니 들이니 산이니 목장이니 할 것 없이 여러 사람의 영창에 편케하여 그의 노래가 노래해지지 않은 곳이 업슬만하다 합니다.<sup>91)</sup>

저녁이엇습니다.

나는 정신업시 머리를 쪽지고 잇섯습니다.(八)

신부여, 일을 그대로 돕시오. 저것 보아요, 손님이 오섯습니다.

저것 들어요, 문간에 매단 현령줄을 한가히 흔드는소리를 듯읍닛가?

(十).<sup>92)</sup>

김억은 사랑을 노래하는 타고르의 시를 ‘고운 음조’를 지닌 ‘구어체’로 번역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예가 『원정』 八과 十이다. 八의 시적 화자가 여성이라면, 十은 남성이다. 김윤식은 “타고르의 시 자체가 新婦가 신혹은 여왕의 시녀의 입장에서 회의 없이 봉사하는 송가였던 점과 함께 여성의 입장에 섰던 것이다. 이 타고르 시의 영향은 한용운에 현저히 나타나는 것이며, 또한 신석정의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아직 촛불을 켜 때가 아닙니다」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라고<sup>93)</sup> 한 바 있다. 그런데 『원정』 一의 등장인물은 시녀와 여왕이 아니라 ‘侍臣’과 ‘여왕’이며, 이 ‘시신’은 칼과 창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下臣은 劔과 槍을 썩슬속에 던졌읍니다.”)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 생각된다. 송옥은 『원정』 四九를 설명하면서, “여인을 껴안고 입맞추는 작중설자의 육감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인 아름다운 여인이”라고<sup>94)</sup> 하여, 시적 화자는 남성이며 그

91) 김억, 「광명은 동방에서」, 《동아일보》(1925), 이수정, 「안서의 시에 미친 타고르의 영향」, 『김안서 연구』, 새문사, 1996, 235쪽에서 재인용.

92) 타고아, 『원정』, 20쪽 및 24쪽.

93) 김윤식, 「한국시의 여성적 편향」, 471쪽.

대상은 여성이라고 본 바 있다. 그러나 또 한편 『원정』 五六은 “나는 살 남사리의 쓸데없는 매일일에 부주하여 하는 여러여자중에 하나이었읍니다./엇지하야 그대는 나를 선택하야 세상생활의 서늘한隱所에서 나를 다려왔읍닛가?”라고 하는 여성화자가 나타나고 있다. 죽음 너머에서 신과 합일하기를 바라는 『원정』에 남녀의 사랑노래가 번갈아 나오는 것은 사랑을 신과 합일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힌두신화와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sup>95)</sup> 남성화자든 여성화자든 그들의 어조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김억의 이른바 ‘구어체’는 남녀공용의 경어체라 할 수 있다.

타고르의 시가 고운 음조를 지녔다고 해서 여성적인 어조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것은 만해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만해시의 경어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남녀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시적 화자의 이중성과 남녀공용의 경어체 때문에 남성 독자는 그 사랑의 대상이 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성 독자는 그 대상이 남성이라고 생각하며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것은 만해시에 나타나는 여성화자의 문제를 검열 문제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한다. 논개와 계월향의 조국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시로 미루어볼 때, 만해시에 여성화자가 나오는 것은 나라 사랑에는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94) 송육, 『시학평전』, 308쪽.

95) 『원정』 七五에 “하느님은 탄식하며, 「엇지하야 나의下僕은 나를바리고서, 나를 차즈라고 아득이느고?」”하였고, 八一에 “엇지하야 그대는 그리도 그웁하게 내 귀에 소군거립니가, 오오, 죽음이어, 나의 죽음이어?”, 八二에 “죽음은 신부틀져 미리 생명으로 혼드려 주엇습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원정』은 죽음 너머에서 신과 합일하는 힌두철학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힌두신화에서 우주의 수호신인 비슈누의 화신인 크리슈나는 신의 아름다움, 즐거움, 사랑을 구현한 것으로 믿어지며, 크리슈나와 소치는 소녀들과의 사랑 이야기는 유명하다. 크리슈나와 라다의 사랑은 개인의 영혼과 신의 상호작용을 상징한 것이며, 크리슈나의 신봉자는 사랑과 복종이라는 인간의 감정을 신을 알고 신과 합일하는 수단으로 여겼다.(레이첼 스톰, 『동양신화 백과사전』, 김숙 옮김, 루비박스, 2006, 223-254쪽 참조.)

만해시의 화자와 문체는 이중적이며 남녀공용의 경어체라는 점에서, 한용운의 시에 나타나는 화자의 어조를 여성적 어조로 보는 기존의 주장을 따르기 어려우며, 김억, 김소월, 주요한, 한용운, 김영랑 등의 시에 현저히 드러난다는 ...하여요, ...이어요 등의 어조를 ‘여성운’이나 ‘여성적인 스타일’<sup>96)</sup> 볼 것이 아니라 구어체나 경어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해시는 시적 화자의 이중성과 남녀공용의 경어체를 통해 조국에 대한 사랑을 노래했다고 할 수 있는데, 만해시의 여성화자와 관련하여 살펴볼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것은 만해시가 작품에서 부정적이며 적대적인 대상에 대한 비판이나 적개심을 나타내 보이지 않은 것은 그의 저항정신에 비추어 하나의 한계점이며, 지나치게 자학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 것인데,<sup>97)</sup> 이 문제는 만해의 독립사상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서요 당신은 오실때가되얏서요 어서오서요  
당신은 당신의오실때가 언제인지 아심닛가 당신의오실때는 나의기다  
리는때입니다

당신은 나의꽃밭헤로오서요 나의꽃밭헤는 꽃들이피여있습니다  
만일 당신을조쳐오는사람이 잇스면 당신은 꽃속으로드러가서 숨으십  
시오  
나는 나뻬가되야서 당신숨은꽃위에가서 안겼습니다  
그러면 조쳐오는사람이 당신을차질수는 업습니다  
오서요 당신은 오실때가되얏습니다 어서오서요

당신은 나의품에로오서요 나의품에는 보드러운가슴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을조쳐오는사람이 잇스면 당신은 머리를숙여서 나의가슴에

96) 김윤식, 『한국시의 여성적 편향』, 469-471쪽 참조.  
97) 신동욱, 『한용운의 시 연구』, 『우리시의 역사적 연구』, 새문사, 1981, 175-180쪽 참조.

대입시오

나의가슴은 당신이만지때에는 물가티보드러옵지마는 당신의위험을위  
하야는 황금의칼도되고 강철의방패도됩니다

나의가슴은 말스굽에밝힌낙화가 될지언정 당신의머리가 나의가슴에  
서 찌러질수는 업습니다

그러면 조처오는사람이 당신에게 손을대일수는 업습니다

오서요 당신은 오실때가되얏습니다 어서오서요

당신은 나의죽엄속으로오서요 죽엄은 당신을위하야의준비가 언제든  
지 되야잇습니다

만일 당신을조처오는사람이 잇스면 당신은 나의죽엄의뒤에 서십시오  
죽엄은 허무와만능이 하나입니다

죽엄의압해는 군함과포대가 찌끌이됩니다

죽엄의압해는 강자와약자가 벗이됩니다

그러면 조처오는사람이 당신을잡을수는업습니다

오서요 당신은 오실때가되얏습니다 어서오서요

- 「오서요」 전문.

이 시에는 만해의 독립사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가 조국을 지키는 방법은 가슴이며, 죽음이다. 가슴이 칼과 방패가 되고, 죽음이 군함과 포대를 막는다는 것이다. 가슴과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이며 목숨이다. 만해의 유심론적이며 평화적인 독립사상은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치열한 것인데, 이것이 때로는 여성화자의 수동성으로 오해될 수도 있었던 것은 아닐까.

만해시에 나타난 독립사상은 불교사상에 바탕을 둔 평화적인 독립사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독립노선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다. 식민지 시대의 민족해방운동에는 실력양성론과 독립전쟁론 이외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위해 노력한 독립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sup>98)</sup> 「님의침묵」, 「당신의편지」, 「당신을보았습니다」,

98) 강만길은 민족해방운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1920년대 전반기 임시

「오서요」 등을 고려할 때, 만해시의 독립사상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유심론적 독립사상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만해시를 읽어야 만해시를 만해시답게 읽을 수 있다.

만해시가 타고르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만해시가 민족주의 문학론의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단편적인 언급이 있을 뿐이다. 만해시의 ‘님’의 정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탓이겠지만, 만해시의 영향에 대해서 말하자면 ‘님’이라는 말을 빠뜨릴 수 없다. 이 ‘님’은 무엇보다 근대 계몽기의 민족 담론과 민족주의 문학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생각된다. 대한매일신보와 안창호, 신채호의 노래나 논설에 나타나는 민족 담론,<sup>99)</sup> 최남선과 이광수의 민

---

정부의 활동과 만주·연해주 지방의 무장항쟁. 2. 1920년대 후반기 대중적 노·농운동과 조선공산당 운동, 국외의 민족유일당운동과 국내의 신간회 운동. 3. 1930년대 국외전선에서의 민족통일전선운동과 무장유격활동, 국내 공산당 재건 운동 및 혁명적 노·농운동과 건국동맹의 성립.(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2001, 17쇄, 39쪽.) 한편 박노자는 ‘당위적 평화주의 신념’과 ‘도덕론’이라는 유교적 이상론의 입장에서 군국주의적인 세계관에 저항하던 경우를 소개하고 있는데, 논설로는 《한성순보》 제6호의 ‘소명론’과 인물로는 유명한 유림이자 계몽주의자 해학 이기, 유길준 등을 들고 있다.(박노자, 『야수의 세상에서 평화를 꿈꾸다』, 『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 한겨레출판(주), 2007, 54-61쪽.)

99) 근대 계몽기의 민족 담론에 대해서는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책세상, 2001, 28-78쪽 참조. “민족이라는 초월적 기표를 실현할 수 있는 인격적 화신으로서의 영웅. 1910년에 가까워질수록 영웅이라는 메타포는 차츰 빛이 바래고, ‘조선혼’, ‘너’, ‘내 사랑’이라는 메타포로 전이되어간다. 조선혼을 애타게 부르는 이 계몽가사는 마치 훗날 김소월의 <초혼>을 예감하게 하는 비극적 진폭을 지니고 있다. 이 작품은 안창호가 중국으로 망명을 가면서 부른 노래라고 전해진다. 여기서 조선혼이 ‘너’, ‘나의 사랑’ 등의 메타포로 표상되어 있다. 이제 민족은 내가 기대고 우러러보는 영웅이나 초인의 형상이 아니라 내가 보호해야 할, 그러나 운명적으로 결별해야만 하는 연민의 대상이 되었다. 영웅론을 가장 비장하게 펼친 신채호조차 1910년을 통과하면서 이제 영웅 대신 사랑하는 연인의 이미지를 수락한다. 한 나라 생각 나는 네 사랑/너는 내 사랑/두 사랑 사이 칼로 썬 배면/고우나 고운 핏덩이가/줄줄줄 흘러내려 오리니/한주먹 덩석 그 피를 쥐어/한 나라 땅에 고루 뿌리리/떨어지는 꽃마다 꽃이 피어서/봄맞이하리./ 최초의 자유시라고 평가되기도 하는 이 작품은 한용운, 김소

족주의 이념과 그 표현으로서의 시조 창작, 김억·주요한의 ‘조선심’, ‘조선의 사상’, ‘조선인의 문학’ 등에 나타나는 조선주의가 그것이다.<sup>100)</sup> 변영로의 『조선의 마음』(평문관, 1924) 속의 「논개」나 『폐허』에 실린 변영로의 「생시에 못뵈을 님을」이란 작품은 “화자가 ‘님’을 향해서 품은 연모의 정을 그 바닥에 깬 것”<sup>101)</sup>이란 점에서 만해시와 직접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V. 맺음말

“사실은 없다. 해석이 있을 뿐이다.”라고 한 것은 니체였다. 해석의 껍데기를 벗기고 『님의 침묵』을 읽으며 만해시의 알맹이를 만나야 할 때가 왔다.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을 읽기 위해서는 그의 작품과 삶, 사상 뿐만 아니라 식민지 시대의 이데올로기나 사회-역사적 배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만해가 『님의 침묵』이란 시집을 낸 의도를 알거나 불교사상 가운데 불성에 대한 이해만이라도 있다면 그의 시집의 ‘님’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며, 만해시로 알려진 그의 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불성은 늘 충만하며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군말」과 달리 자신의 시가 지닌 역사적인 의의에 대해 말하는 「독자에게」에서 볼 수 있는 만해의 진솔한 목소리, 식민지 시대의 거짓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거나 조국에 대한 사랑을 표명하고 있는 여러 시편을 고려할 때, 님은 불타나 형이상학적 진리, 혹은 애인이나 자연, 중생이 아니라 조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월 등이 대표할 님이라는 메타포의 출현을 예견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미숙, 같은 책, 67-71쪽.)

100) 민족주의 문학론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오세영, 『20세기한국시연구』, 새문사, 1998, 4쇄, 78-79쪽 참조.

101) 김용직, 『한국근대시사』 상, 학연사, 1998, 177쪽.

『님의침묵』의 ‘님’은 조국을 의미하는 알레고리였다. 알레고리는 결과 속을 구분해야 한다. 만해시가 어려운 것은 일제의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 자신의 참된 의도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징, 연애시, 여성화자, 유사불교적인 용어, 모호한 표현 등은 참된 의미를 감추는 길이며 방편이었다. “방편이 없는 지혜는 얽힘이요, 방편이 있는 지혜는 풀림이며, 지혜가 없는 방편은 얽힘이요, 지혜가 있는 방편은 풀림이다.”라는 유마경의 말씀에 대해, 만해는 “지혜와 방편이 쌍전하여야 해탈”이라고 한 바 있다. 만해시를 읽을 때 만해가 방편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있어야 만해시의 비밀은 풀리게 된다.

식민지 시대의 독자들이 만해의 시를 조국을 사랑하는 시라고 이해한 것은 지혜와 방편이 쌍전한 이해였다. 해방 이후 만해의 님에 대한 해석은 다양해졌으나, 이것은 오히려 만해시의 방편에 얽힌 것이었다. 해석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해석학 이론, 상징에 대한 애호와 알레고리에 대한 혐오를 지니고 있었던 로만주의 문학관, 작품에서 작가의 의도를 배제하고자 하였던 형식주의 문학이론, 기독교적 세계관이나 헤겔의 부정의 변증법,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따른 해석 등 만해시의 님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되거나,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더라도 한용운의 삶이 골드만이 규정하는 ‘비극적 세계관’의 틀에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부정의 변증법’에 따라 님은 ‘보이지 않은 진리’, ‘존재의 가능성’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님을 조국으로 보는 알레고리적 해석은 “의미의 긴장감을 제거해버리는” “간단한 우의적인 해석”(김우창)으로 받아들여졌다. “님의 본체론”이라는 그럴듯한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지녀야 보편성에 이르는 문학이며, 민족에 귀속되는 해석은 “식민지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문학의 원시화”(고은)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나치시대에 지배계층에 순응할 수 없었던 독일의 문인들이 노예언어를 통해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였고, 알레고리는 노예언어의 수법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sup>102)</sup> 만해가 사용한 ‘님’이란 말은 빼

얕긴 조국을 환기하는 노예언어라는 점에서 만해시의 알레고리는 지배언어에 저항하기 위한 보편적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만해시의 알레고리가 지닌 의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만해시의 넘은 조국을 의미할 뿐 아니라 시에 따라서 조국의 구성요소인 산하나 민족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점에서 만해시의 알레고리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 알레고리의 일반적 성격과 달리 복잡한 만해시의 알레고리는 알레고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며, 알레고리 시를 읽기 위한 보다 섬세한 안목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만해의 불교적 세계관은 현실과 거리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상과 현실의 거리를 좁히려 하는 만해의 실천적 관심에서 비롯된 만해시는 아이러니와 역설, 그리고 이데올로기 비판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만해의 불교적 세계관은 자유 평등 평화의 이상사회를 지향하는 데 반해 식민지의 현실은 고통스러웠다. 만해가 조국을 사랑하는 시를 쓰게 된 것은 국가가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역사적 제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상과 현실의 부조화를 느꼈던 만해는 아이러니와 역설을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을 드러내면서 거짓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였고, 국권을 상실한 민족을 위로하며, 여성주의의 감상성을 극복하는 등 올바른 독립의 방법을 모색하였다. “넘은갓지마는 나는 넘을보내지 아니하얏습니다”라는 아이러니는 국권상실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독립이라는 당위성을 믿고 있는 그의 유심론적 독립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날카로운 키스, 짓밟는 당신을 안고 건너감, 재가 다시 기쁨이 된다는 표현도 고통스러운 조국 사랑에서 비롯된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표현이며, ‘리별은 미의창조’(「리별은 미의창조」) 역시 국권상실의 슬픔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역설적 표현이었다. 만해의 독립방법은 비폭력독립노선이었다. 평화적 방법을 통해 ‘제국주의의 수단인 군국주의’(만

102) 김숙희, 「노예언어와 지배언어」, 『오늘의 책』, 1984, 가을 No 3, 217-218쪽 참조.

해의 「조선독립의 서」 참조)에 저항하였던 만해의 민족주의는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불교적 민족주의라 할 수 있다.

만해시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비판의 내용을 살펴보면, 식민지시대의 눈물의 신과 비극, 우승열패의 진화론 사상과 부국강병을 주장하는 개화파의 사상, 권력에 기생하는 각종의 학문과 현실 초월적 종교사상, 폭력혁명사상, 독립에 대해 절망적인 삶, 신에 기대어 독립을 바라는 기복적인 종교사상, 조선민족은 열등하다는 식민지 이데올로기 및 이광수 등의 조선민족에 대한 부정적 견해 등이었다. 이처럼 만해의 시는 산문적 진술을 통해 거짓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서를 표현하는 서정시와 다른 정치시라 할 수 있다.

만해시의 경어체는 여성적인 어조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으며, 만해는 남녀의 대립을 초월하는 사랑의 형식을 구어체 혹은 남녀공용의 경어체를 통해 표현하였다. 만해시는 타고르와 김억의 역시의 ‘구어체’의 영향을 받았지만, 님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 계몽기의 민족 담론과 민족주의 문학론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으며, 그 님은 조국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만해의 『님의침묵』은 국권을 상실한 조국에 대한 사랑·헌신·고통을 노래하고 있으며, 식민지시대의 거짓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평화적인 독립의 방법을 모색하였고, 조국의 국권회복을 예감한 시집이었다. 만해는 일찍이 「조선 독립의 서」에서 “현재로부터 미래의 대세는 침략주의의 멸망, 자존적 평화주의의 승리가 될 것”이며, “조선 민족의 자결은 세계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만해시는 민족의 자존과 자결, 자유야말로 세계평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자유·평등·평화가 없는 보편주의는 기존의 세계질서를 정당화하는 제국주의의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일 뿐임을 보여준다. 만해는 조국이 독립되면 그의 시가 “느진봄의숫썩풀에 안저서 마른국화를비벼서 코에대히는것과 가뜰는지 모르것습니다”라고 검사를 하였지만, 그의 시집 『님의침묵』과 그의 ‘자존

적 평화주의'는 조국 독립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책이며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의 고통스런 체험을 지닌 한국은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무와 자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한용운전집』, 불교문화연구원, 2006.  
『한용운 수상집』, 김관호 편, 신구문화사, 1976.  
『한용운의 님의 침묵』, 한계전 편역,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윤허 용하, 『불교사전』, 동국역경원, 1985.  
라빈드라나드 타고아, 『원정』, 김억 역, 회동서관, 대정 13년.

### 2. 논문 및 저서

-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2001.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책세상, 2001.  
고은, 『한용운평전』, 민음사, 1975.  
고재석, 「마른 국화와 매운 풍란화」, 『한국현대시인론』, 시와시학사, 1995, 31-50쪽.  
곽명숙, 「《님의 침묵》에 나타난 사랑의 담론」, 『관악어문연구』 23집, 1998, 241-258쪽.  
김숙희, 「노예언어와 지배언어」, 『오늘의 책』, 1984, 가을 No 3, 216-235쪽.  
김열규, 「한용운 시의 아이러니」, 『한용운 연구』, 새문사, 1991, II-46-II-56쪽.  
김영철, 『현대시론』, 건국대학교출판부, 1993.  
김용직, 『한국근대시사』, 학연사, 1998.  
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97.  
김윤식, 『근대한국문학연구』, 일지사, 1973.  
김은전, 「시교육의 성격과 목표」, 『현대시교육론』, 시와시학사, 1996,

11-32쪽.

- 김인환,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읽는다』, 열림원, 2003.
- 김재홍, 『한용운문학연구』, 일지사, 1982.
- 김종인, 『날카로운 첫 사랑의 키스』, 나남, 2008.
-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7.
- 김준오, 「현대시와 선사상」, 『현대시의 환유성과 메타성』, 살림, 1997, 13-38쪽.
- 김학동, 『한국근대시인연구』[ I ], 일조각, 1977.
- 김현, 「여성주의의 승리」,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민음사, 1972, 131-146쪽.
- 문덕수, 「한용운에 있어서의 님의 성격」, 『한용운연구』, 새문사, 1991, III-12-III-20쪽.
- 박노자, 『나를 배반한 역사』, 인물과사상사, 2003.
- 박노자, 『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 한겨레출판(주), 2007.
- 배영애, 「『님의 침묵』의 심층구조」, 『작가의 이상과 현실』, 이인복 편, 태학사, 1999, 385-406쪽.
- 백낙청, 「시민문학론」,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창작과비평사, 1979, 9-76쪽.
- 서준섭, 「한국근대시인과 탈식민주의적 글쓰기」, 『한국시학연구』 13호, 한국시학회, 2005, 7-49쪽.
- 손승남, 「가다머의 해석학과 교육」, 『교육은 자기 교육이다』,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 손승남 옮김, 동문선, 2004, 41-76쪽.
- 송건호, 「일제하 문화와 통치」, 『문화와 통치』, 민중사, 1982, 145-167쪽.
- 송옥, 『시학평전』, 일조각, 1971.
- 송옥, 『님의 침묵 전편해설』, 일조각, 1993.
- 송혁, 「만해의 불교사상과 시세계」, 『한국불교문학연구』(下),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8, 305-350쪽.

- 신동욱, 『우리시의 역사적 연구』, 새문사, 1981.
- 신용협, 「한용운 문학의 연구사적 비판과 전망」, 『한용운 연구』, 새문사, 1991, III-34-III-46쪽.
- 심재룡, 「불교와 사회」, 『사회와 인식』,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민음사, 1984, 75-92쪽.
- 엄국현, 「한국시의 리듬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문창어문논집』 37집, 문창어문학회, 2000. 233-276쪽.
- 오세영, 『20세기한국시연구』, 새문사, 1998.
- 오세영, 『한국현대시인연구』, 도서출판 월인, 2003.
- 오세영, 「마쓰히즈메와 사랑의 실체」, 『한용운연구』, 새문사, 1991, III-21-III-33쪽.
- 윤성우, 『폴 리콥르의 철학』, 철학과현실사, 2004.
- 윤재근, 『만해시와 주제적 시론』, 문학세계사, 1983.
- 윤재근, 『만해시 『님의 침묵』 연구』, 민족문화사, 1985.
-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1975.
- 이길진 역, 「조선독립의 서」, 『한용운 수상집』, 신구문화사, 1976, 10-25쪽.
- 이남호, 『교과서에 실린 문학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현대문학사, 2001.
- 이두현, 『한국연극사』, 학연사, 1997.
-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1998.
- 이상섭, 「만해 시에의 열쇠는 없다」, 『언어와 상상』, 문학과지성사, 1980, 229-237쪽.
- 이선이, 「만해의 불교근대화운동과 시집 『님의 침묵』의 창작 동기」, 『한국시학연구』 11집, 2004, 137-159쪽.
- 이일환, 「수사술에 대하여」, 『알레고리와 아이러니 사이』, 한신문화사, 1999, 39-65쪽.

- 이재선 엮음, 『문학 주제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6.
- 정태용, 『한국현대시인연구·기타』, 어문각, 1976.
- 조동일, 「잠 없는 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용운 연구』, 새문사, 1991, III-2-III-11쪽.
- 조명기, 「한용운의 저서와 사상」, 『한용운 전집』 3, 불교문화연구원, 2006, 10-18쪽.
-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72.
- 주요한, 「愛의 祈禱, 祈禱의 愛」, 『한용운사상연구』 1권 1호, 만해사상연구회, 1980, 11-15쪽.
- 조지훈, 「한용운론」, 조지훈전집 3 『문학론』, 나남출판, 1996, 304-310쪽.
- 진영복, 「성의 모더니티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어문논총』 4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8, 257-289 쪽.
- 최경희, 「센터연구와 검열연구의 교차점에서-여성 및 근대 여성담론의 식민지적 특성에 대한 시론-」, 『일제 식민지 시기 새로 읽기』, 도서출판 해안, 2007, 165-197쪽.
- 최동호, 『한용운, 혁명적 의지와 시적 사랑』, 건국대학교출판부, 1996.
- 최상용, 박홍규, 『정치가 정도전』, 까치글방, 2007.
- 최신한, 「자연의 자유와 자기의 자유」, 『철학』 51집, 한국철학회, 1997, 149-176쪽.
- 한계전, 『한계전의 명시 읽기』, 문학동네, 2007.
- 한만수, 「일제시대 문학검열 연구를 위하여」, 『배달말』 27호, 2000년 12월호, 79-96쪽.
- 허우성, 「만해의 불교 이해」, 『만해학보』 창간호, 만해학회, 1992, 61-120쪽.
-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 역사학연구소, 서해문집, 2004.
- 스에게 다게히로, 『동양의 합리사상』, 이효상 옮김, 대원정사, 1987.

- 岡本清一, 『자유의 문제』, 편집부 옮김, 진흥문화사, 1983.
- 릴라 간디, 『포스트 식민주의란 무엇인가』, 이영욱 옮김, 현실문화연구, 2000.
- 피아세나 덧사나야케, 『불교의 정치철학』, 정승석 옮김, 대원정사, 1987.
- 마르틴 하이데거, 『숲길』, 신상희 옮김, 나남출판사, 2008.
- 폴 리콴르,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박병수·남기영 편역, 아카넷, 2004.
- J. 라레인, 『현대 사회이론과 이데올로기』, 한상진·심영희 옮김, 한울, 1984.
- 레이첼 스톰, 『동양신화 백과사전』, 김숙 옮김, 루비박스, 2006.
- D. C. Muecke, 『아이러니』, 문상득 역, 서울대 출판부, 1986.
- John MacQueen, 『알레고리』, 송낙헌 역, 서울대 출판부, 1983.

<Abstract>

## The Censorship System in the Era of Colony and Rhetoric of the Silence of the Nym

Eom, Kook-Hyeon

Han, Yong-Woon's anthology *The Silent of the Nym* aims for the independence of the Choseon which was under the ruling of the imperialist Japan. His poetry's Korean Nym which means lover or Lord or king was found out that it signifies his fatherland Choseon. The rhetoric of his anthology is not symbol but allegory.

Han, Yong-Woon's political philosophy was based on the Buddhism, and his epoch was groaned under the tyranny of the imperialist Japan. Irony, the rhetoric of Han, Yong-Woon's poetry was caused by the disharmony between Han, Yong-Woon's ideal philosophy and negative realities of his times.

Han, Yong-Woon's poetry is characteristic of prose, because his poetry aims at the criticism against colonial Ideology which was prevailed in his times. In order to evade the censorship system of the imperialist Japan, he made poetic device, such as symbol, woman speaker, suspected term of Buddhism, obscure expression.

Han, Yong-Woon's poetry was affected by not only Tagore's poetry and Kim, Eok's spoken language style, but also literary theory of Korean nationalism. He made woman speaker to praise Nym and to go through the censorship system in the era of colony. So we should differentiate between Han, Yong-Woon's woman style and

Tagore's poetry and Kim, Eok's interpretation style.

Han, Yong-Woon's poetry was recognized as a difficult one for the scholars to understand his poems. But if we know the Han, Yong-Woon's intention and expedient of his anthology, we can read his poems easily. And we can say that Han, Yong-Woon's anthology *The Silent of the Nym* can contribute not only to the independence of his fatherland but also to the peace of world.

Key Words : Han, Yong-Woon, Censorship, Symbol, Allegory, Irony, Ideology